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2월 31일(음력 11월 12일) 일요일 (주간) 제 609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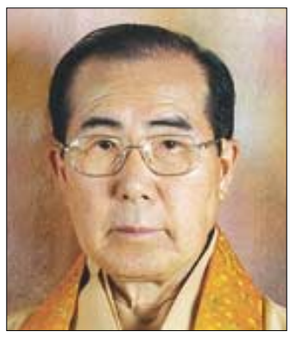
"베풀면 모두가 보배다"

각 종단 대표 신년법어…갈등 · 분열 넘어 상생과 희망의 세계 구현 주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진각종 도흔 총인

"정해년 붉은 해가 천지를 감싸고 빛을 놓으니 곳곳에서 법뢰(法雷)가 울리고 무위대화(無爲大化)가 일어난다. 마음을 비우고 베풀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보배가 됨을 알게 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2월 26일 2007년(불기 2551년) 정해년 신년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탐욕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비우면 현실세계를 바로 알게된다"며 "싸우게 되면 모두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베풀고 양보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은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북한 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집값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우울함도 증가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키워왔다"며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는 희망을 키우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밝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자리(自利)에 집착한 나머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으며 나(我)만 있고 우리(我等)는 없는 잘못된 풍토가 만연되어가고 있다"며 "생명을 경시하고 다툼이 치성하며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세상, 도덕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힘이 곧 정의로 평가받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새해에는 온누리에 대자비와 공덕을 베풀고 모든 국민이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계발에 힘쓰자"고 신년사를 밝혔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봄이 시샘한다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유유히 흐르는 저 구름과, 산은 다투지 않는다"며 "맑고 맑은 무심의 그 자리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진각종 도흔 총인도 "자행화타의 정신으로 포교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재양성과 복지 등의 수많은 종책 업무가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국민경제가 발전되어 극심한 구직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처한 민생고가 시급하게 해결되도록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은 "정해에 구름이 개고 아침 햇살이 퍼지니 온 누리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지네"라는 게송으로 시작해 "둥글고 둥근 동방의 밝은 나라 우담화 피듯 오대주를 두루 비추리라"고 법어 했다.

총지종 효강 종령도 "정진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법화종 원융종 총화종 보문종 원효종 여래종 등 각 종단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들도 신년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밝은 세상이 열리길 기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신년법어 buddhanews.com에

현대불교신문
계속 발행됩니다

새 법인 구성해 계속 발행키로 …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한마음선원의 언론포교에 대한 의지와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한마음으로 모아져 '현대불교'의 폐간결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신설회사를 조기에 설립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은 향후 선원의 지원방법, 직원들의 자구노력, 그리고 향후 현대불교 신문의 진로와 운영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불교'는 내부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신문의 내용을 더욱 새롭게 장엄해 새해부터 알찬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언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이래 12년간 불교계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신행 풍토 진작과 언론포교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대불교신문이 있기에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원력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선원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뜻을 합쳐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폐간결정이 있은 후 직원들이 '신문을 계속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대주주와 이사진 여러분께 적지않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넓으신 도량으로 '현대불교'의 변함없는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대불교'의 폐간에 대해 우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 스님들 및 불자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인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



도반의 향기 7면
경찰병원불자회 윤애경 부회장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2006 불교계 10대 뉴스 4면

겨울철 건강관리 이렇게 13면

월호 스님의 '맘짱'이 되자 19면

대북사업 · 대사회사업 '활기' 예고

종단협 새해사업 · 예산 6억1천만원 확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는 1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예산안과 신년 주요사업 계획을 결의하고 신임 임원도 선출했다.

2007년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6억1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주요사업과 행사로는 △신년하례법회 △제3회 3 · 1절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제8회 8 · 15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을 봉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비롯해 제1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와 제1차 일본대표단 초청 한국불교문화체험 등의 국제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부회장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스님을, 상임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 이사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종단협 사무국장에는 항명스님(쌍계사 주지)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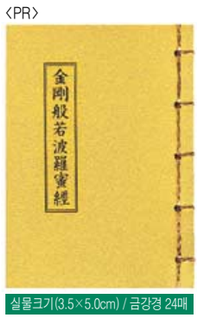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이사 33명 가운데 24명(위임 3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내부 사정으로 이번주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20면으로 발행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충격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매국적 음모의 실체

호국, 불교TV에서 그 진실을 밝힌다!!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최대관심인 이유는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언스지와 미 보건성에 의하면 년간 줄기세포 시장은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가치의 황금산업이다. 21세기 경제전쟁의 중심에 황우석박사의 특허기술이 있다.



황우석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수립은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 우수한 원천기술이 학문적 영역, 의료계의 이권다툼, 매국노집단의 분탕질로 인해 향후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황우석박사가 사기꾼인양 매장되는 여론이 형성될 무렵 KBS 문형렬PD가 황우석박사 파동의 본질을 파헤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특집방송 (추적60분)을 제작했으나 외압에 의해 결국 방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참다못한 호국, 불교방송에서 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큐로 제작하여 3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줄기세포의 진실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특허 사냥꾼 새튼이 훔쳐간 줄기세포의 진실의 내막과 줄기세포가 존재했었다는 엄청난 사회고발성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불교TV특별기획 방송일정
"새튼은 음모와 NT-1의 진실"
불교 TV www.btn.co.kr

▶ 1부 – 12월 28일 : 오전 7시 45분, 오후 7시30분
▶ 2부 – 12월 29일 : 밤 11시 30분
▶ 3부 – 12월 30일 : 낮 12시 50분

언론,시민단체
· 국민의 소리(www.peoplevoice.co.kr)
· 민초리(www.minchori.com)

황우석박사 지지단체
· 아이러브 황우석(http://cafe.daum.net/ilovehws)
· 어게인 황우석(http://cafe.daum.net/againhws)
· 황우석 광장(http://cafe.daum.net/46st)
· 황우석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livehwang)
· 황지불(http://cafe.daum.net/buljahws)
· 점프리 맨(http://www.hws.name/)
· 난기모(http://cafe.daum.net/eh2389)
· 황지연(http://cafe.daum.net/damnmbc)
· 서프라이즈(http://www.seoprise.com)

황우석박사 지지 지역단체
· 경기남부연합 (http://cafe.daum.net/soohe)
· 황우석 지지 대전 충남협의회(http://cafe.daum.net/hws042)
· 황국연(http://cafe.daum.net/prideofkorea)
· 황우석과 함께하는 부산시민연대(http://cafe.daum.net/busanhws)
· 황우석 지지 광주모임(http://cafe.daum.net/kwangjumeet)
· 황우석 지지 전주전북 모임(http://cafe.daum.net/jeonjuhws)
· 태왕사신기

그래도 희망은 황우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추기경이 12월 21일 승가원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탄절 기쁨 불자와 함께

지관 스님 축하메시지, 정진석 추기경 승가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5일 '예수님 오신날'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2천만 불교도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승가원 장애아동복지시설(원장 동옥 스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지관 스님이 천주교복지시설인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뤄졌다. 김두식 기자

한국 · 우크라이나 불교 교류 희망

유센코 대통령 지관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20분간 환담했다(사진).

지관 스님은 이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국교가 돈독해지고 불교교류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센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불자수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금강대 총장 공개모집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이사장 도용 스님)가 내년 1월 15일까지 총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를 원하는 지원자는 방문 · 우편 · 인터넷(www.ggu.ac.kr)을 통해 이력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금강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1)731-3303, 3304 김두식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되짚어 보는 주요종단의 2006년

내실 다지며 세계화 '큰 걸음' 성과

조계종 간화선 대중화 · 어린이포교 기반 다지기 매진

태고종 혼란 속 전승관 건립 '선교육후득도' 자리매김

천태종 총무원장 교체…복지교육사업 활발히 전개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완료 "내년 기대"

올해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들은 수행체계 확립과 득도수계 기준 강화, 교육 불사 등 내실 다지기에 치중했다. 또 해외교류와 사회복지사업 등 폭넓은 대외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종단의 내적 발전과 대사회적인 불교 위상 강화 포교 등을 화두로 분주하게 살아 온 주요 종단의 활동상을 되짚어본다.

조계종

올해는 지난해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체제의 원년으로 어린이 포교와 간화선 보급을 통한 수행풍토 진작에 힘쓴 한 해였다.

종단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지침서를 제작했고 간화선 기본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 연수를 실시해 간화선 대중화의 초석을 다졌다. 또한 간화선 대중화의 핵심 요소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선(禪)포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어린이 포교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종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포교 선포문을 발표하는 등 종단의 어린이 포교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하는 등 장기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 포교가 불교 희망임을 재확인했다.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행정 처리 역시 많이 개선된 한해로 평가된다. 종무행정 교구 이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 민원실 개소를 비롯해 사찰주지인사 및 창건주정비실사 등을 통해 불확실한 관리사찰범위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삼성문화재단과 함께 현등사 사리를 원래의 위치에 다시 봉안한 일은 문화재 환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불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진 조선왕조실록 월정사본에 대한 환수도 이뤄져 사찰 문화재 소유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더불어 사찰문화재 소유권 확립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등 성보 회수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인 한해로 평가받고 있다.

제13대 중앙종회의 폐막과 제14대 중앙종회의 시작도 조계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였다. 제13대 중앙종회는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종도 대의기구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계파의 이해를 대변 · 옹호하는 중앙종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10월 26일 치러진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적 업무 진행과 금권선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불국사와 관음사에 대해 재선거, 금산사에 대해 보궐 선거 결정이 날 정도로 혼탁한 선거였다.

태고종

태고종은 선암사 사태, 황룡사 사건 등 어느해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득도수계기준을 강화하고, <태고종사>를 발간하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을 완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태고종의 올한해 가장 눈에 띄는 제도적 변화는 득도수계 자격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태고종은 내년부터 종립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방불교대학내에 설치 예정인 행자습의 강좌를 이수한 자에 한해 합동득도 수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태고종이 7년 간의 노력 끝에 올 2월 <태고종사>를 발간한 것도 큰 의미로 꼽는다. 용어사용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조계종측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태고종 입장에서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사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 태고종의 가장 큰 경사는 태고종 총무원이 12월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내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로 총무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2004년 첫 삽을 뜬 후 3년 만에 완공된 전승관은 서울 사간동 법륜사 터 연건평 1천600여 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으며 낙성식은 내년 봄 봉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종단 내부에서는 발전의 기지개를 켜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종단외적인 대사회활동은 활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천태종

천태종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수장인 총무원장이 26년만에 바뀌었다는 것이다. 1981년부터 천태종을 이끌어왔던 운덕 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제 14대 정산 총무원장이 4월 9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천태종은 올 한 해 복지 부문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될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이 7월 26일 평택 법장사에서 결성법회와 함께 발족했다.

또한 천태종은 자유와 평화를 찾아 사선을 넘은 새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단양 구인사, 원주 성문사 등에서 다수 개최했다.

이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의식, 관음정근, 다도체험 등을 불교문화와 습의의식 체험을 비롯해 촛불기도, 유서쓰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돼 새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천태종립 금강대가 전국 사립대학교 중 교육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것도 천태종의 큰 자장거리다.

진각종

진각종은 올 한 해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전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전력을 다했다. 통리원안에 대규모 밀교전승관 건립을 올해 확정했다. 종도들이 통리원을 찾아와 불공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언, 찬불가 등 진각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리의 통일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올 한해 큰 성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교육불사'를 통해 종단 내실다지기에 나섰다. 진각종은 올해 개설된 대구 의밀심인당과 포항 상륜심인당 부설 불교대학 등에 통리원차원에서 장소와 강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불교대학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진각종이 올한해 총력을 기울인 '가족 포교운동' 캠페인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었다.

5년 임기를 마친 혜일 총인에 이어 진각종 제 10대 총인에 도흔정사(경주 각성심인당 주교)가 10월 19일 추대된 것도 진각종의 큰 변화다.

국민전체의 70%가 불자인 나라 스리랑카에서 진각종은 11월 28일 의미있는 두 가지 행사를 개최했다. 회당학회가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에서 주최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와 네곰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에서 진행된 졸업식이다.

진각종은 이번 학술대회를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의 유사성, 특히 각국 밀교의 뿌리를 조명하고 각국의 활발한 불교학 연구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또한 2004년 개원한 네곰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배가 증원된 1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각종이 스리랑카 포교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기가 됐다. 김주일 · 김두식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운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 개인택시 불자

연합회로 신행 · 포교 '붕~붕'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의 개인택시 불자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포교활동에 나선다.

이들 4개 시 개인택시불자회는 내년 1월 초 의왕 용화사에서 첫 공동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4개 시 개인택시불자연합회는 군포시 금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월 7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4개 시 개인택시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 각 지역의 택시조합이 불자연합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4개시 개인택시불자연합회는 첫 공동법회 전까지 집행부를 구성한 뒤 세부 논의를 거쳐 활동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인택시불자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서로 인접해 있는 4개시 개인택시 불자들이 연합해 활동할 경우 포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연합회 활동을 통해 각기 내부 조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사실 안양을 제외한 3개 지역의 개인택시불자회는 인원이 적어 불자회가 구성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연합회 결성은 지역 포교와 불자단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합회는 첫해 사업으로 공동법회, 봉사활동, 성지순례 등을 실시한다.

'공부하는 신행단체' 목표로

공동법회 · 봉사활동 · 성지순례

공동법회는 연합회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첫째 월요일 의왕 용화사에서 진행하며, 봉사활동은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되 불우이웃돕기나 어르신 나들이 등 규모가 큰 행사는 함께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시순례는 내년 봄 첫 순례를 시작으로 매년 2~3차례 봉행한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는 안양 개인택시불자회만 진행해왔던 데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연합회가 단순히 조직연합 차원이 아닌 '공부하는 신행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회 인원은 안양 56명, 군포 31명, 의왕 11명, 과천 11명 등 모두 109명. 이들 전 회원은 2년 안에 기초교리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신입회원 가입원서에는 기초교리 수강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놓았다.

또 연합회 사무실을 법당으로 꾸며 언제든지 와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서도 비치해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신영전 안양개인택시불자회장은 "말로만 '달리는 법당'이니 '거리의 포교사'니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불교를 생활화하겠다는 것이 연합회를 구성한 기본 취지"라며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실천불교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번 *클릭!* 불교자료 '한눈에'

동국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가동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한글로 입력하고 검색했다. 화면 왼쪽에 불교전서(4건), 한글대장경(0건)이라는 창이 떴다. 다시 불교전서(4건)를 클릭하니 <금강반야바라밀경> 상(1건),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건), <역산집>(1건), <추파집>(1건)이 검색됐다. 그 중 <금강반야바라밀경> 상(1건)을 클릭하자 197쪽이 나오고, 다시 197쪽을 클릭하니 저본으로 사용된 원문 이미지와 한문텍스트가 동시에 나왔다. 한문텍스트 중 '무주(無住)'라는 단어를 클릭하자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랐다.

각종 불교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http://buddha.dongguk.edu)'을 가동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담하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인 '불교문화종합DB'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국가지식정보자원인 <한국불교전서> <한글대장경> 및 불교사전 등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전서>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계 고승과 명현들의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일부자료는 국보 또는 귀중본 등으로 지정된 자료로서, 그간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합천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을 번역한 한글판 대장경인 <한글대장경> 외에도 불교용어 · 인명 · 사찰명 등 2만여 건의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불교사전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이용의 편리성이다.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를 열어주며 텍스트 가로보기, 세로보기, 한면보기, 두면보기, 텍스트 · 이미지 비교보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문 내용 중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 한자의 뜻과 음 및 영어까지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번역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측은 "내년에는 불교관련 판화서비스, 불교관련 학위논문서비스, 학술지 기사색인 서비스, 단행본 목록서비스 등 불교관련 자료를 총망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숭실중 교사 종교 강요 거부선언

허형범 교사 시교육청에 '시정명령 청구서' 제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떳떳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재단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을 지시 받아온 현직 교사가 '종교 강요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기독교재단인 서울 은평구 소재 숭실중학교에서 23년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허형범 교사는 12월 19일 '헌법상의 양심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허 교사는 "학교재단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종교 강요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교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양심을 어겨가며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허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시정명령 청구서에는 종교 강요행위의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숭실중학교 담임교사들은 학생 조회와 종례 때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성경구절 강독, 찬송, 기도로 이어지는 약식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또 종교과목 평가시 종교기관 탐방을 의무화해 1년에 30여차례에 걸쳐 특정종교시설을 가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우수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집중 훈련과정을 실시, 이른바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을 강요하는 기도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

허 교사는 "지난해 학급 경영평가 간담회에서 교장에게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은 "종교재단의 선교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종교강요 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뉴라이트연합 창립

불교뉴라이트연합(상임공동대표 장산)이 12월 18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뉴라이트연합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우파정권 창출 △좌향적 기운의 거세 △새로운 시대정신 창출 등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상임공동대표 장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뉴라이트운동을 우리의 권익과 위상을 드높이는 호국호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한마음선원 소년소녀돕기 송년의 밤 성황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송년의 밤 '푸르게 살라!'를 마련했다(사진).

12월 23일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는 본원 소속 모든 신행회들이 한 자리에서 처음 갖는 송년행사였다.

1부는 신도들이 직접 만든 연극으로 장식했다. 음악이 있는 연극 '마음 너머 마음으로'는 신행생활에 대한 세 부부의 담소 사이사이에 노래와 춤이 곁들어져 재미를 더했다.

2부는 어린이합창단, 학생회, 혼성합창단, 청년합창단 등이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특히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첫 선을 보이는 밴드와 화려한 탭댄스 등으로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강지연 기자

간화선입문프로그램

3기 1월 24일부터 10주간

'간화선입문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3기 과정이 2007년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이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은, 참선을 배우고 싶은 누구에게나 기초부터 참선까지 쉽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우 스님(봉화 금봉암 선덕)을 증명법사로,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지도법사로 진행되는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은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과 변희욱 박사가 지도사로 나선다.

입재는 1월 24일 오후 7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리며 42명 선착순으로 접수(02-735-2428)받는다. 회비는 20만원.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신행증(수료증)을 발급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동물위령제 봉행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인간의 생명을 위해 동물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곳. 생(生)과 사(死)의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가 열렸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12월 14일 병원 5층 법당에서 '동물위령제'를 봉행했다. 일산불교병원 지도법사 중제 스님과 이명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위령제는 청혼 낭독과 위령제단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위령제에서 지도법사 중제 스님은 "사람이나 동물 모두 생명의 차이는 없으며, 평등하고 존엄해야 한다"하며 "동물위령제는 인류의 복지와 보건을 위해 실험실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영가를 위해 명복을 기리는 제사"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과학연구소(소장 이애영)는 동물을 희생시킬 때 동통이나 고통 없이 급속한 무의식 상태에서 사망을 유발하는 안락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복지와 나눔' 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12월 21일 하림각에서 '불교사회복지와 나눔'을 주제로 제4차 불교사회복지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불교사회복지 후원모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한국 JTS 자원개발부 김애경 부장이 '한국 JTS 거리모금 캠페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교육' 방안을 아름다운재단 국제협력연구팀 서현선 팀장이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불교사회복지 후원모금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원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모금기획 전문가 양성 △분명한 목적 수립 △복지서비스 시설 및 기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에서도 공동모금회와 같은 모금 조직을 설립하고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비 기자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9기 추가통신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과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게춤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신간 실기교육 위주)
- 12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2월 29일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2월 30일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혼의식 하는법, 부도 재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2월 31일 : 정월용왕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예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현숙)]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군포교 활성화 토대 구축 조계종 군종교구가 출범 첫해를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라는 교구 표어를 제정하고 교구 운영의 제도화, 선진교구 구현, 군장병 과반수 불자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다. 종단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단의 종령체제 확립과 제반교육 참여 확대 등에 진력했다. 또한 만인동참 등 후원체계 마련과 군불교후원회 출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비구니, 타종단 군승 파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포교 전담팀 신설 2006년은 그동안 침체의 그늘을 벗지 못했던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비로소 다시 활성화된 해다.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지난 9월 조계종 포교원 산하에 어린이 · 청소년포교 전담팀이 생겼고, 11월 11일 어린이포교전진대회가 열리는 등 어린이포교를 위한 준비가 가속화됐다. 이처럼 새싹포교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12월 15일에는 어린이포교단체들이 한데 뭉쳐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를 공식 발족하는 등 단체의 역량도 결집되고 있다.



도난성보 무더기 회수 올해는 '성보 문화재 회수 원년의 해'라고 기록될 만큼 도난 성보를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그 첫 단초는 6월 한국불교박물관으로부터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은 것이다. 10월에는 불화, 석탑 등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취득 · 은닉해 온 사설박물관 등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적발됐다. 광역수사대는 해남 대흥사 영산회상도와 예천 한천사 지장시왕도 등 보물급 도난 성보 6점을 포함한 516점을 압수,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태고종 수난과 전승관 완공 태고종 일산 황룡사 주지 정모씨(42)가 신도들에게 종교사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지난 9월부터 태고종 총림인 순천 선암사에서 주지 임명권을 놓고 폭력사태가 발생된 것도 태고종단의 뼈아픈 상처로 기억된다. 선암사 사태는 재적승려들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12월 11일 태고종의 큰 숙원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 기공한지 4년만에 완공돼 본격적인 종로시대를 열었다.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빛났다

본지 선정 2006 '10대 뉴스'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의 단식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으로 시작된 불기 2550년(서기 2006년). 조계종 종립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수난과 희망이 교차한 해였다. 어린이 · 청소년포교 전담팀 신설, 군포교 활성화 토대 마련, 도난성보 회수, 불교인재개발원 설립, 활발한 국내외 구호활동 등이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면 일산 황룡사 사기사건과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 등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중앙승가대 봉은사 점거시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행운영, 불교뉴라이트연합의 정치세력화 등은 불교계가 풀어야할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천태종 총무원장 26년만에 바뀌어 천태종의 수장이 26년만에 바뀌었다. 1981년부터 천태종을 이끌어왔던 운덕 스님의 후임으로 정산 스님이 4월 9일 제14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천태종은 정산 총무원장 시대를 새롭게 열며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운덕 스님에 이어 새롭게 행정 수반이 된 정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승려양성 및 교육제도의 체계화,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강화,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대책 수립을 통해 종단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봉은사서 집단기도 · 단식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 대학원 원우회 · 총학생회가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1월 6일부터 봉은사 보우당에서 무기한 집단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총동문회장 정념 스님을 비롯한 28명은 단식에 돌입, 중앙승가대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 일로 조계종 기본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중의 힘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계종 중신회, 불교인재개발원 설립 한국불교 인재개발을 위한 큰 걸음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설립 후 불교인재개발원은 각묵 스님 초청 특강, 간화선입문프로그램, '불교관계법 개선' 관련 정책포럼, 올해의 인재상 시상 등을 하며 불교인재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전문강사 및 불교인재양성, 불교 오피니언리더그룹 3000명 인재뱅크구축, 16개 광역단체 및 230개 기초단체 그룹 조직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동국대는 △남한 건학기여 사찰기념비 건립 △북한 건학기여 사찰 방북 법회 △100주년 기념 수계 대법회 등을 봉행했다. 100년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100년사 편찬 △100년 사료 전시회 △타임캡슐 봉안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 학술세미나 △건학 100주년 기념식 △100주년 열린음악회 △기념우표발행 등을 선보였다. 한편 동국대 새 총장에 오영교 前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출됐다.



국내외 구호활동 활발 올 여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가 강원도 등의 지역을 강타했을 때 불교계는 발빠른 구호활동에 나서 수재민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와 평창 월정사, 속초 신흥사, 인제 백담사 등 피해지역 사찰들은 사찰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수재현장을 찾아 봉사의 구슬땀을 흘렸다.

뿐만 아니라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피해가 발생하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JTS 등이 구호 · 봉사대를 현지에 파견, 국제재난구호활동에서도 한국불교계의 역할은 빛을 발했다.



'불교환경의제21' 선포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해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환경문제. 올해에는 대법원이 천성산 관통터널과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유난히 개발론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종단과 사찰, 불자들의 환경지침서라 할 수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을 확정 · 선포했고, 빈그릇운동과 친환경공양미 실천운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계를 근간으로 한 '환경5계'를 제정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제26기
최 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 1월 4일 오전 10시

기간 매주 목요일 6시까지 (7회과정)

통신교육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림(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可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대화를 통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커버넌트대학교 최면치유학 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연정국악원(구)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2층)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멋진 꿈 갖고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길"

영천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 열어 매주 영어로 수업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에 참가한 60여 어린이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어린이 포교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은해사는 12월 17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불교어린이회를 창립하고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을 열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영천과 하양, 금호, 신령 지역에서 온 60여명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은해사 경내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풍선장식이 내걸렸다. 또, 지역의 중고등학생 10여명이 보조교사로 나서 후배들의 활동을 도왔다.

개회사,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으로 이어진 법회에서 법타 스님은 "은해사가 개산 1197돌 만에 제일 기쁜 날을 맞았다"며 "어린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스님도 되고, 의사 공무원 선생님도 되고, 거지나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장차 훌륭한 세계의 지도자,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멋진 꿈을 갖고, 어린이법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단주를 끼워주고 키티와 미키마우스 장식의 귀마개를 선물로 전달했다.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은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다도반, 한문반, 축구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창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매주 영어로 가르친 뒤 반별수업을 하게 되는데 다도반은 지역의 전문 다도사범이, 한문반은 덕림 스님이 이끌 예정이며, 축구반은 경일대 축구부가 지도할 예정이다.

하양에서 김경연(9)양 김세연(7)군과 함께 온 어머니 장은숙씨는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을 통해 불교를 알고 친구와 함께하며 협동하는 삶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해사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은해사 어린이회 창립은 은해사주지 법타 스님의 원력과 영천, 하양, 신령포교당을 비롯한 지역 말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3개월 전부터 준비돼 왔다.

특히 은해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은 3개월 동안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무작위로 어린이들을 만나 어린이들의 종교와 성향을 파악하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이어왔다.

또 영천, 하양 신령 포교당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 수송을 위한 차량지원을 약속했다.

명강 스님은 "본말사가 원력을 갖고 서로 연계해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어린이포교에 희망이 있다"며, "산중에 있는 은해사의 불교어린이회 창립이 지역 어린이포교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입재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산옹)는 12월 20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 법회를 시작으로 매일 두 차례 대덕 스님들을 초청, 화엄경에 대한 법문을 열게 되는 화엄산림법회는 2007년 1월 18일까지 봉행된다. 특히 매주 일요일마다 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입재 법문에서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화엄경은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넓고 높으며 불가사의 한 법계진성이 드러난 경전"이라며 "화엄산림법회를 통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들께 귀의하는 선근을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동국대 명예 교수 인환 스님 등 26분의 대덕스님을 초청, 화엄경의 요체에 대한 법문이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개관 10주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2월 15일 부산 영빈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토 상임이사 범산 스님의 연혁보고로 시작된 이날 기념법회는 개회사, 시상 및 성금 전달식,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용호복지관 관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아버지, 어르신들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혜총 스님은 시민여객 김복조 사장 외 9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배기숙씨 등 3명의 장기근속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근수

국군부산병원 묘광사 법사

12년간 군포교 앞장…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원칙

불상모시기 · 봉사자 위한 공간 마련 원력 세워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축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야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다. 국군부산병원내 묘광사에는 컴퍼스의 중심축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 김근수(57 · 법안) 법사다.

국군부산병원 포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법사가 있다. 그가 있어 국군부산병원 묘광사가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김법사는 묘광사 불사를 이룬 장본인이기도 하다. 망미동에 있던 국군통합병원이 지금의 해운대 국군부산병원으로 이전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법사가 없었다면 병원 내 법당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위기였다. 1995년부터 망미동 국군통합병원내의 좁은 막사에 법당을 만들어 3명의 포교사와 함께 법회를 열어 왔지만 병원 이전으로 법회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 강당은 기독교에 양보하고 몇 개월을 기다려 겨우 10명이 앉아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겨우 배치 받았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군 간부들이 타종교인이라 김법사의 포교와 묘광사 불사에 견제도 심했다. 견디다 못해 넉 장의 항의문을 작성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불교적 특성에 맞는 불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덤볐다. 병원내의 전 간부가 모여 2시간여 동안의 회의를 거쳐 김법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김법사는 지금도 '불자 장교 한사람이 백 사병 부럽지 않다'는 뼈있는 농담을 하곤 한다. 군포교 현장에서 12년을 보낸 김 법사의 애환이 묻어나는 말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길러놓지 못한 현실에 더해 타종교가 선교에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물적 인적 자원에 대응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 김법사는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린 날이 얼마였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교회에는 음식을 차로 한 차 가득 싣고 오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명절이나 부처님오신날 겨우 떡이나 음료수를 주는 우리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김 법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음'으로 다가서는 수밖에는. 병실을 돌며 아픈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마음을 다독거려주었고 법회 날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 보냈다. 이제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준 김법사를 중심으로 포교사회, 이리회, 문수회, 금강수회가 돌아가며 일요일과 수요일 법회에 필요한 각종 일을 돌보고 있다. 또한 김법사의 아내인 김청정심(53) 보살도 단 한번의 불평도 없이 불사 권선을 도맡아왔고 봉사에도 늘 함께해 왔다.

국군부산병원 법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앞으로 생기게 될 국군광주병원내 법당 불사에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심하고 있다. 김법사를 중심으로 그려가는 군포교의 원이 점 점 더 둥글어지고 커져간다.

김 법사는 묘광사의 세 가지 원력을 이루기 위해 100일 기도를 봉행 중이다. 종 불사와 나대지를 산책로로 조성해 연못에 연밭을 꾸미고 해수관음상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는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곳만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한 곳을 지키며 포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늘지고 힘든 곳에서 썩어 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늘 정진할 겁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음 통해 종교간 갈등 허물길"

부산 6대 종교인 손잡고 평화 기원 음악회 열어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인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정여)는 12월 14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제6회 생명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200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야성당에서 첫 기도회와 음악회를 개최한 이후 6회째를 맞이한 음악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의 종교지도자와 신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부산평화방송 사장 김승주 신부, 최상윤 부산예총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정여 스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서 종교 간의 영적 교감이 하나로 뭉쳐질 것"이라며 "음악의 화음이 종교간의 갈등과 장벽을 허무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주 신부는 "몸의 어느 한 곳만 탈이 나도 몸이 아프듯 종교도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평화를 가꾸어갈 수 없다"며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리는 기도회와 음악회로 세계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어진 음악회는 금정구복지관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로 막을 올렸다. 이어 우담바라합창단, 부산 예술인총연합회 한남식 회장의 성가와 성균관 유도회 박영제 선생의 시창이 선보였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신도회 바자회 개최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에



동화사 신도회(회장 허석구)는 12월 18일 대구 달서구 화진 예식장 커피숍에서 '불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에 나섰다. 동화사 상임위원회(위원장 손창수)와 팔공다도회(회장 곽명자) 주관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겸한 일일찻집을 개최한 것(사진).

50여석이 넘는 행사장은 정오에 문을 열자마자 자비실천행에 동참하려는 지역 불자들의 호응으로 만원사례가 이어졌고, 로비에 즉석으로 마련된 좌석에도 손님들이 들어서 동화사 신도회가 정성껏 준비한 차와 음식을 즐겼다. 또, 커피숍 입구에 마련된 바자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도 마련했고, 커피숍 한 켠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라이브콘서트, 경품 뽑기 등의 이벤트가 벌어졌다.

동화사상임위원회 손창수 위원장은 "사중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출 · 재가자간의 단결과 화합을 이뤄 동화사와 불교를 알리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이번 바자회를 통해 대구지역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사 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직지사 4대문 개축불사 회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성웅)가 장애인들이 쉽게 경내에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직지사는 일주문 대양문 금강문 천왕문 등 4대문으로 들어서는 계단식 진입로의 일부를 경사로로 바꾸는 개축불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일주문 앞에서 회향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직지사에는 그동안 사대문으로 출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사대문을 통해 직지사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천미희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 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 전화 : 052)293-5550
● 팩스 : 052)293-5540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사 서 지 웅
재무국장 지 성
교무국장 일 우
감찰과장 운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 전화 : 053)766-7231
● 팩스 : 053)766-7232

정법 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운파 석 해동
종회의장 법정 석 덕암
총무원장 동천 석 고림
기획실장 동하 석 해공
(종회의원 및 종무직 임원일동)
대승불교 전국승가회 회원 일동
대승불교 전 법 사 회 임원 일동
국제(해외) 포교사단 임원 일동
총본산(총무원) 상원사
● 주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 1리 산 112-2 ● 전화 : 054)534-3268
※ 본 종단의 입종을 하시고자 하는 사, 암(승려 · 법사) 연락 바랍니다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2> 염불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처음 절에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살 때는 스님들이 염불하는 것이 참 싫었다.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어떤 선입관이 생겨 청아한 염불 소리에도 감동보다는 거부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뒷날 염불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서는 염불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불을 권하고 있다. 알고 보니 염불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큰스님들의 수승한 법문이었기 때문이다. <선가귀감> 52장에서 말한다.

念佛者 在口日誦 在心日念 徒誦失念 於道無益

염불이란 무엇인가? 입에 부처님이 있을 때는 부처님만 소리 내어 외운다고 하고, 마음에 있을 때는 부처님을 본다고 한다. 부처님을 부질없이 입으로 외우기만 하고 마음에서 보지 못한다면 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서산 스님은 말한다.

阿彌陀佛六字法門 定出輪廻之捷徑也. 心則緣佛境界 憶持不忘 口則稱佛名號 分明不亂 如是心口相應 名曰念佛

'나 무 아 미 타 불' 여섯 자 법문이야말로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잊지 않고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 이처럼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이를 염불이라고 한다.

오조 홍인은 "본디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육조 스님은 "늘 다른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사를 면치 못하나 '내 본마음'을 지키면 피안에 도달한다" 하고, 또 "자신의 성품에서 부처님을 찾을 일이요 몸 밖에서 찾지 말라" 하며,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로써 극락왕생을 구하나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라고 하고, 또 "중생이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제도하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큰스님들은 본디 마음을 바로 가리켰지 따로 다른 방편을 쓰지 않았다.

중생이 생사를 여의고 부처님 세상 가기 위해

심신다해 명호 부르는 것은 윤회 끊는 지름길

이치로는 그렇지만 현상으로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확실히 있고 아미타불의 마흔여덟 가지 큰 원력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열 번 소리 내어 아미타불을 부르면 이 원력의 힘으로 극락왕생하여 바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똑같이 말씀하셨고 시방세계 보살들도 똑같이 그곳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더구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의 행적이 분명하게 전해오고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이 점을 잘못 알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에 힘쓸 일이다.

산스크리트어의 '아미타'는 우리말로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 또는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빛'이라고 하니, 시방삼세 으뜸가는 부처님의 명호이다. 수행할 당시의 이름은 법장비구인데 세자재왕(世自在王) 부처님 앞에서 마흔여덟 가지 원을 세워 "제가 성불(成佛)할 때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과 인간 및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조차 내 명호를 기억하고 열 번 소리 내어 부른다면 반드시 저의 국토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미타참법>에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에서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다.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려면 더디니 자력에 비유하고, 남의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넌다면 빠르니 그것은 부처님의 힘에 비유한다"라고 말하였다. 또 "어린애가 큰 불이나 물에 쫓겨 큰 소리로 살려 달라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부모들이 급히 달려와 구해내듯 사람들이 죽을 때 큰 소리로 염불하면 신통갖춘 부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맞이해 갈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더 지극하고 중생의 생사는 물이나 불의 재앙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정토이니 새삼스레 정토에 가서 날 것이 무엇이며, 자기 성품이 아미타불이니 아미타불을 보려고 애쓸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지만 틀렸다. 저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이 없는데 그럼 나도 탐욕이 없고 성냄도 없단 말인가? 저 부처님은 지옥을 연화세계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지만 나는 지어 놓은 업 때문에 늘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더구나 지옥을 연화세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인가? 저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눈앞에서 펼쳐보지만 나는 담 넘어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방세계를 눈앞에서 펼쳐보듯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때문에 사람마다 그 성품이 부처라도 행실은 중생이니 그 모습과 쓰임새를 논한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규봉 스님은 "부처의 이치를 단박에 깨달아도 중생의 행실은 반드시 점차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즉 자신의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에게 묻노니, 어찌 태어날 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생긴 아미타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보면 어찌 이를 스스로 알 수 없겠느냐? 죽을 때 오는 숨 끊어질 마지막 고통에서 정말 자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한때 잘난 마음으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질 일을 만들지 말라.

또 마명과 용수도 다 조사스님인데 분명히 가르침을 내려 극락왕생을 간절히 권했거늘 내가 누구라고 극락왕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친히 "서방극락정토가 여기서 멀리 십만[十惡]팔천리[八邪]나 된다"라고 한 것은 둔한 사람을 위해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서방세계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한 것은 총명한 사람을 위해 근본 성품을 말씀한 것이다. 가르침에는 방편과 실상이 있고 말씀에는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이 있으니, 아는 것과 행실이 어울리는 사람은 멀거나 가까운 서방세계 이치에 다 통한다.

어리석은 중생이 생사를 여의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귀로는 똑똑히 들으며 마음에는 부처님 세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생사의 윤회를 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나무(南無)

텔레비전 사극 배우가 극중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하고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기가 막힌 상태에서 툭 던져지는 대사로 흔히 이 말이 쓰이곤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무'란 무엇일까요?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는 'namas'로, 예배(禮拜)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중국에서는 나마(那摩), 나막(那莫, 南莫) 등 여러 가지로 음사하고 있지요. 그 뜻은 '경례, 공경, 귀경, 귀례, 귀명, 귀의' 등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가령 나무 뒤에 아미타불을 붙이면,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무는 보통 염불할 때에서는, 불 · 보살의 명호나 경전의 이름 앞에 붙이며 귀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아미타불'은 육자명호(六字名號)라고 합니다. 여섯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생각만 해도 구원을 받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해, 타력염불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는 '일심(一心)'으로 부처님께 귀의해 구원을 바라는 원(願)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구원을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행(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은 원행(願行)이 구족된 여섯 글자라는 뜻으로 육자명호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나무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십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김철우 기자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희망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27 · 끝)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3강 횡설수설의 강의를 마치며…

2년 반의 긴 횡설수설을 어떻게 마감할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폐간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1. 왜 현대불교신문인가

터놓고 물어봅시다. 지금 불교는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어디에서 시퍼런 생명력을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찰입니까, 서점에 진열된 불교책들입니까, 스님들이 들고 있는 간화 속에 있습니까. 사찰은 다만 경배의 공간이고, 책들은 일방적 훈계이며, 간화는 일초직입의 예외적 말후구(末後句)입니다. 여기 공통되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오직 '소통'하는 것, 그 현장에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만 이름입니다. 전통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살아있고,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죽이면, 그 소통의 큰 공간 하나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 다른 신문들이 백가쟁명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단의 기관지나 특정 사찰의 소식지를 떠나, '현대'의 '대중'들에게 불교를 일깨우고, 미래를 계몽하고 있는 불교의 신문이 대체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불교신문이었기에 전문가인 저도 턱없이 불교의 문제며, 화두선의 효용 등을 대놓고 시비해도, 그것이 장강의 한 지류, 다양한 방편 속의 하나로 그저 묵묵히 일리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열린 자세 하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불교의 생명은 소통과 관용, 그리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춘 신문이 어디 여럿 있다고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름 그대로 그 삼박자 혁신의 선두에 있고, 그런 점에서 불교계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자산과 미래를 제발 통촉해주셔야 합니다. 대중들은 이 희망의 불씨 살리기에 촛불 하나라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환경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불교의 목소리와 종교간 대화를 주도했으며, 한국불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과감한 주장과 목소리들을 담아내왔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한마음선원으로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력자인 대행스님은 여성으로서, 보수적 종단에 대해 독자적 혁신을 이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력이 현대불교신문 창간과 정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한마음선원이 현대불교신문을 자신의 기관지로 낙착시키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공덕 중의 공덕입니다. 나는 거기서 <금강경>의 말씀처럼, 법을 앞세울 뿐 이름을 따지지 않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의 큰 원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오는 신문에 대행스님의 법문 두 페이지가 실려 있을 뿐, 한마음선원에 대해 일체의 홍보나 소식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한마음선원이 신문의 대주주로 재정을 지탱해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신판 대장경'



2. 그런데 지금 그 본래 원력을 접겠다는 소식이 있어 슬픔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왜인가요. 창간의 그 원력과 정신이 그만 쇠퇴한 것인가요. 저도 모르는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속사정의 훈습이 사람을 온전히 만나고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상(相)에 잡혀 있으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을 열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의 이력과 경력을 묻지 않고, 현장에서 만난 교감과 소통을 더 중시합니다. 큰일을 다룰수록 친소나 은원을 떠나 비전을 읽고 조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왜 폐간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내놓고 보니 한마음선원의 선전과 홍보에 별 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온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또 신문이라는 새 불법 홍포의 귀한 매체를 아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문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조직과 인력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개선하고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과 수완에 따라 한 조직은 전혀 다른 얼굴로 개선되고 혁신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고 부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대불교신문의 그동안의 성과와 인지도, 그리고 자원에 주목하고, 그 가능성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혜와 솜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면, 한국불교의 중심 매체로, 나아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의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 현대불교신문을 폐간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커다란 실수로 판정될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 주는 타격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법보시를 위해 전법을 위해 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좁은 생각이었다면 아예 창간을 않거나 10여년 전에 기조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경영부담이 너무 컸거나, 조직과 인력이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둘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경영의 부담은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도 저도 아니되면 자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동안 일해 정재를 아끼지 않더라는 평판이, 수지타산에 맞추어 포교의 장을 닫아버린 세속적 집단이라는 혐의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갱생과 자력의 여유를 주지 않고, 서둘러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비난까지 가세하면, 한마음선원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혀 받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겠거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유와 최후의 지원은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사람이든 조직이든 처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한 법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일해왔던 식구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때, 불교의 자원 손실은 둘째치고라도, 가장이요 기둥인 그들이 안을 좌절과 고통을 남의 일로 치부해 둘 것입니까. 굶주린 독수리에게 몸을 찢어 내어주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서서 실천하지는 못할 망정,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제 식구를 궁한 사정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씽크 빅, 생각을 크게 가집시다. 미흡하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고, 조직과 운영은 비전에 따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부수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4. 학생이나 부하나 간에 '명령'만으로는 사람을 심복시킬 수 없습니다. 명령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효과와 비전이 납득될 때, 그 명령은 비로소 '나의 것'으로 내 힘의 발현으로 추진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와야 하고, 오랜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뗏목은 버려야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물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사코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두는 문자 밖이 아니라, 그 문자의 도정 속에 있습니다! 옛적 화두가 문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토록 애썼다면, 지금 화두는 문자의 '소통' 속에서 영글어가는 과일이고, 깊어가는 강물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신문'이 바로 그 달라진 불교의 시험장이고 포교장입니다.

신문 없이 불교없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지켜주십시오. 한마음선원 이사진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2월 31일 일요일 (주간) 제 609 호



잔인한 운명이 시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감당해야 할 몫일 뿐. 그래서 윤애경씨는 늘 밝다.

“오늘도 희망에 악수 청해요”

식물인간 남편 20년간 돌보며 병원불자연합회 경찰병원서 봉사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윤애경 부회장

잔인한 운명이다.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삶. 잔인하고 혹독한 운명이 시작된 것은 1987년 1월이다.

시위진압 기동대에 근무하던 남편이 경찰 봉고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쳤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고,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름 아빠 이젠 그만 일어나야지…”
둘째 낳은지 5일 만에 당한 사고
병 간호하며 눈물로 보낸 20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남편
“의식은 없지만 옆에 있잖아요”



“아름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인태한 번도 못 안아 봤잖아. 자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둘째 인태를 낳은 지 5일 만에 당한 예상치 못한 사고. 세 살 난 첫째 딸 아름이는 죽은 듯 누워있는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몇 달을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 살 길이 막막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먹여야 했다. 산목숨은 살아야겠기에. 하지만 싸늘한 남편 손을 잡으면 이내 무너져 내렸다.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잖아요.”

간호학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남편을 제대로 간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1991년부터 생활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절에도 다니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야간 공부를 마치고 경찰병원 법당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아니 실컷 울고 싶어 법당에 엎드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아름 아빠, 나 왔어요. 불편한 데는 없어요?”

96년에 집으로 옮긴 남편. 어제 저녁에도 윤애경(47)씨는 직장에서 돌아와 남편에게 인사를 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의식은 없지만 자율신경은 살아있어서 이따금씩 반응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윤애경 씨는 잘 안다.

점심시간에도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남편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간단히 점심을 먹고는 다시 병원으로 온다. 기도에 구멍을 뚫어 삽입해 놓은 튜브가 남편의 입이다. 음식물을 갈아서 주사기로 튜브에 넣어주는 일은 20년을 한결같이 해 온 일이지만 늘 서럽다.

남편을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 집을 국립경찰병원 인근 아파트로 옮긴지도 꽤 오래전 얘기다. 윤애경 씨는 현재 국립경찰병원 피부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경찰병원에 남편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병원 관계자들이 윤애경 씨의 정성에 탄복해 이뤄진 것이다.

“20년이 됐죠. 참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아빠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불쌍하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내가 태어나서 아빠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몇 년 전이었을까. 고1인 인태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아빠를 붙들고 울먹일 때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 “아빠와 함께 목욕탕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쓴 일기장 위에 떨어져 있는 눈물자국을 보았을 때의 아픔은 그래도 차라리 나았다. 빗나가는 동생을 어루만지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빠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아픔을 삭이는 아름이를 볼 때면….

잊어야 했다. 닥치는 대로 일했다. 2002년에 경원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산정보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공부를 마쳤다. 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와 경찰병원 의료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애경 씨다.

마흔 일곱인 윤애경 씨는 스무 살 처녀같다. 의식 없는 남편을 20년 간 돌보면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해맑다. 그렇게 맑은 것이 더 시리다. 바보같이 아프다고 말 할 줄도 모른다. 애써 감추려는 것은 너무 힘겹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

“며칠 전에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얘들 나쁜 버릇 좀 고쳐달라고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아빠가 살아계셔야 할 텐데…, 남편 같은 경우 어느 순간 안 좋아지면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살며시 웃던 윤애경 씨의 표정이 달라진다. 아름이는 대학 졸업반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직을 앞두고 있고, 인태는 대학 2학년이다.

잘 자라 준 두 아이가 더 없이 고맙다. 그래서 더더욱 아빠 없이 결혼했다는 말만은 듣게 하고 싶지 않다.

희망과 절망은 늘 공존한다. 윤애경 씨는 늘 희망에게 악수를 청한다. 지난 20년 세월을 버텨 온 습관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남편. 윤애경 씨는 남편의 병상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오늘 밤에도 ‘내일’을 꿈꾼다.

‘내일은 일어나겠지….’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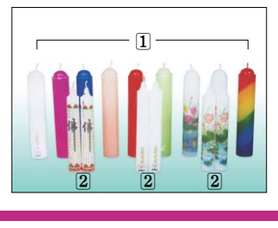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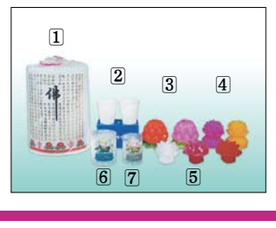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1 7.5ϕ×45Cm 전사지 (호랑이, 용, 반야심경)
2 8.3ϕ×30Cm 쌍용(용이 마주 보고 있음)
3 9.2ϕ×31Cm (전사지)용
4 9.2ϕ×31Cm (전사지)반야심경


1 7.4ϕ×14.5Cm 백색, 적색, 청색, 노랑, 핑크, 연두
2 4.6ϕ×15Cm 백색,무지개, 반야심경
3 7.4ϕ×10Cm 반야심경
4 등초 大 3.1ϕ×12.5Cm
5 등초 大 1.8ϕ×12.5Cm (봉지20개入)


1 밀大 4.6ϕ×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적색, 연두,전사지, 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2 글大3.4ϕ×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연화


1 심지7개 반야심경, 연화,호랑이, 용
2 종이컵초 2개入
3 연화(大) 적,노,핑,주황
4 연화(中) 적,노,핑,주황
5 연화(小) 적,노,핑,주황
6 바람막이(中)
7 바람막이(小)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91 · 끝〉 얼굴가난(下)

도심의 어느 사찰에 매월초하루가 되면 미인보살이 꽃을 올리러 온다고 한다. 정말 마주쳐 지나친 후 누구나 다시 한번 뒤돌아볼 정도의 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보살이 절에 도착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고 했다. 또 그녀가 절을 나선 이후에도 다시전화가 온다고 한다. 몇시에 나갔느냐고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다.

전화 받고 답하는 일이 매달 반복되다보니 그것도 원주소임자에게는 스트레스였다. 이쯤이면 예쁜 것도 죄가 된다.

그건 그렇고, 머리가 상투처럼 위쪽으로 튀어나온 것은 관상학적으로는 못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육계'라고 하여 더 높이 가치부여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또다른 법칙이다. 공자처럼 머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못생겼다는 평가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앞짱구 뒷짱구도 아니고, 이걸 윗짱구라고 해야하나. 그런데 이를 성인이 갖추어야 할 삼십이상(三十二相) 중의 하나로 여겼으니 참으로 오묘한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수행자가 불과(佛果)를 이루게 되면 환골(換骨)하기 때문이다.



키 커지길 발원한 명암 선사

'허공장구문지법'으로 기도해

12센티미터나 커졌다는데…

도독지책(塗毒智策)선사는 조그마한 절에서 수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 것이 사흘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대중들은 뇌종양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릴 정도였다. 통증이 멎자 곧바로 정수리 뼈가 솟아올라 마치 다른 이의 뼈를 머리 위에 꽂아놓은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에 가장 큰 총림사찰인 쌍경사(雙徑寺)의 주지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는 수행력이 복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도 얼굴성형보다 더 어려운게 키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900여년 전에 기도를 통해 키를 늘인 명암영서(1141~1215)선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희귀한 예라고 하겠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 출가이후에도 내심 자기의 작은 키를 늘 의식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밀교 수행법의 하나인〈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이라는 비밀법을 닦아서 키가 좀더 커지기를 발원했다. 백일간 지성으로 기도한 덕택으로 키가 약 12센티미터 정도 더 커졌다고 한다.

〈허공장구문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법인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성장판'을 키울 수 있는 불교적 처방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왕이면 미인이 될 수 있는 기도법까지 찾아내어 한 세트로 묶어서 세간에 내놓으면 포교가 저절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세 성장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선사의 고준한 법문보다는 성형외과의 견적서가 더 호소력을 가지는 시대에 걸맞는 방편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링컨은 사십이 넘으면 자기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물론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분위기를 아름답게 연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도 '면상(面相)'보다는 '심상(心相)'을 더 강조했다. 아름다운 마음씨와 수행으로 가꾼 투명하고 맑은 얼굴을 어찌 말초적인 성형미인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후기

일주일에 한번씩 2년동안 긴 연재를 무사히 마쳤다. 스스로 재주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호기있게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마감시간이 턱까지 다가와서야 뭔가 주제가 떠오르곤 했다. 흔히 프로작가들은 '원고를 막았다'고 표현한다. '막았다'는 말속에 애시당초 '질높은 글을 썼다'는 의미는 설 자리가 없다. 그저 마감시간에 쫓겨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는 말이다. 아마추어인 나도 일주일에 한번 씩 '겨우 막았다'고 해야겠다.

보잘것 없는 글에 귀한 지면을 내준 '현대불교'와 분에 넘친 칭찬, 그리고 질책 격려해준 강호의 '고수'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봉사는 나의 운명…한 시간이라도 더…"

자비나눔 원력대상 수상

춘전화 보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는 춘전화 보살.

"한 시간 행복하고 싶으면 낮잠을 자고, 하루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일년간 즐거우려면 재산을 물려받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를 하라."

광주 · 전남지역 불자들의 신행공동체인 자비신행회가 12월 15일 광주 KBC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 '2006, 아름다운 자비나눔의 날' 행사에서 이사장 현장 스님은 이 같은 속담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들 가운데 '올해의 자비나눔 원력대상'을 수상한 춘전화(박춘자 · 63)보살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남다른 감회에 빠졌다.

춘전화 보살은 자비신행회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로부터 봉사시간 인증 적용 후 처음으로 600시간을 돌파해 이날 대상을 받았다.

"봉사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지 누구를 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을 받고나니 부끄럽습니다."

몇 년전 만해도 춘전화 보살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다. 오래전부터 앓아온 류머티스 관절염, 심장병, 갑상선 등으로 5분도 걷지 못했다. 그나마 사찰에 나가 부처님 전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다.

20여 년전, 사찰 봉사자들과 함께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날 춘전화 보살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우리 주위에는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어차피 몸뚱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자"며 자원봉사에 죽기 살기로 나서게 됐다.

움직이는 종합병원과 다름없는 몸을 이끌고 재활원을 찾아가 기저귀를 빨기 시작했다. 그런데 희유한 일이 생겨났다.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만은 잠시나마 몸의 고통이 사라졌다.

"걷기조차 힘든 병자였는데 남 위해 일하며 고통 이겨내"

3년간 600시간 봉사 인증

육체적 고통도 한 생각 돌리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자원봉사가 조금씩 늘어났다. 매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봉사를 하는 곳도 많을 때는 서너군 데가 됐다.

1999년, 반갑게도 광주 불교계에도 본격적인 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가 생겼다. 근래에는 수요봉사팀장을 맡아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초하루, 보름법회가 수요일과 겹쳐도 무조건 자원봉사가 우선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공양올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요봉사팀은 모두 7명이다. 팀원들은 모두가 동생쯤 돼는 후배들이다. 아침 8시30분이면 자비신행회 작업장으로 와서 밑반찬 4종류를 만든다. 점심공양을 하고 다시 배달 팀과 함께 노인들에게 직접 반찬을 전달하고나면 하루가 간다.

이번에 돌파한 600시간은 2003년부터 시행된 봉사시간 인증서에 기록된 시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동안 상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염치불구하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딸아이와 손주 녀석들도 봉사에 참석하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손녀와 함께 행사장에 나와 상을 받은 춘전화 보살은 요즘도 손가락에 반창고가 떨어질 날이 없다.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금년 봄부터 서서히 먹는 약을 줄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약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봉사할 때면 신바람이 나고 즐거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 느낌을 평소에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 없이는 못사는 줄 알았는데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준엽 기자

백련재단, 종로에 '열린선원' 개원

서울 도심 한복판, 그것도 사무공간이 즐비한 종로의 오피스텔. 이곳 8층 한 사무실에 '특별한' 불교공부 도량이 생겼다. 내건 작은 현판의 이름은 '열린선원'.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백련재단이 선방을 열었다.

12월 19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836호에 열린선원을 개원하던 날. 감원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은 "초발심을 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수행과 불교공부도량'으로 누구에게나 열린선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원순 스님이 첫 행사로 선택한 것이 '초발심자경문' 직강(直講).



열린선원 감원 원순 스님(오른쪽)이 오는 1월 개강에 앞서 재가불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 강의하고 있다.

원순 스님, 1월 17일부터 '초발심…' 강의

불자 공부모임 · 단체에 장소 무상 제공

'초발심자경문'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불자들이 일생공부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스님의 지론 때문이다.

열린선원은 이를 위해 실참실수와 함께 경전과 어록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7년 1월 17일부터 격주로 수 · 목요일 이틀간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한다. 법회는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열린선원은 이와 함께 3월부터 양산 통도사 前 강주인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37평 규모의 열린선원은 특히 불자공부모임과 수행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개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722-0633.

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4주 12월 21일 - 12월 27일 [155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21일[목]	근 덕	-	신남항	24km
12월22일[금]	신남항	-	나 곡	24km
12월23일[토]	나 곡	-	울 진	25km
12월24일[일]	울 진	-	해월현	24km
12월25일[월]	해 월	-	후포등대	20km
12월26일[화]	후포등대	-	대진항	19km
12월27일[수]	대 진	-	창 포	19km

제 5주 12월 28일 - 2007년 1월 3일 [71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28일[목]	창 포	-	장 사	20km
12월29일[금]	장 사	-	칠 포	19km
12월30일[토]	칠 포	-	포 항	19km
12월31일[일]	포 항	-	울릉도	216km
1월 1일[월]	울릉도	- 독 도 -	울릉도	184km
1월 2일[화]	울릉도 일주			40km
1월 3일[수]	울릉도	-	포항 보은사	2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님께 알립니다

고통받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자비행을 고심한 끝에 청정고을 경북영양천의 오지 일월산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나무와 뿌리만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 여러분들께서 고민없이 복용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불자님들께서 건강하셔야 불국정토가 이룩됩니다.

1. 자연산 * 돼지감자의 효능 *
- 당뇨(천연이눌린이 다량함유)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각종암과 성인병예방 및 고혈압, 간, 위장, 심장두근거림과 대장운동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2. 자연산 * 헛개나무의 효능 *
- 간장, 대장, 신장, 위장치료의 효능
- 간경화, 지방간, 간암예방, 만성 관절염의 치료와 알콜해독은 물론 술로 인한 황달에 효능

3. 자연산 * 뽕나무의 효능 *
- 고혈압, 중풍, 당뇨, 대장, 소장, 관절
- 수족마비, 각기병, 소변불리에 효능

위 내용으로 고통 받는 불자님께서 전화를 주시면, 108분께 「**50봉들이 1박스**」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전화번호 : 054)682-5808
※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 2리 58-1
관 법 사 총무 성덕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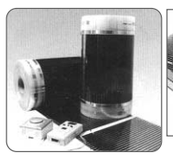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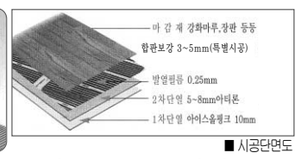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5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사무실,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여래 아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치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아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1) 전신에 거품이 나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아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자, 불자님들께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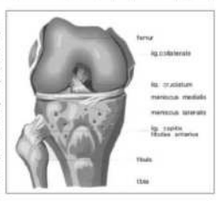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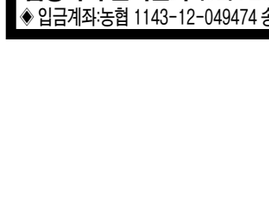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배운 것 실천하며 늘 화두와 함께 살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송구영신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가 저뭅니다. 삶의 여정에서 험난한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사자후를 토하며 삶의 지표를 일러 주었던 큰스님들의 가르침은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것처럼 불자들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코너를 통해 들었던 큰스님들의 법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도 새해를 맞는 큰 기운이 될 것입니다.

신년을 열었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에서부터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서울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순천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등 열네분의 법문을 가려뽑아 향훈의 울림이 큰 부분만을 모았습니다. 큰스님들의 수행력에서 우러나오는 주옥같은 감로법문을 곱씹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

앉으나 서나 화두 물처럼 흘러야

참선은 일생생활에서 무르익어야 됩니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화두가 흐르는 물처럼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면 밝은 지혜 눈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물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명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근심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밝히는 일에 열중해서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매불망 정진하다보면 마음속의 갈등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면서 지혜가 밝아져서 탕탕자재하게 되는 겁니다.

558호 (2006년 1월 1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

공부는 안거에 들어간 수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다같이 자기 자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옷(육신)을 벗어 버릴줄 아는 공부입니다.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에서 가능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두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전에 만암 큰스님이 제게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자 입니다" 했더니 "먼저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람이 되지 않고 중이 되면 승가도 시끄럽습니다. 559호 (2006년 1월 4일)



운문 스님(서울 운문사 주지)

空의 이치 알아야 집착 깨뜨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공을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선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나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그 뜻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561호 (2006년 1월 18일)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

남 위해 살 때 만족 얻을 수 있어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후를 맞아 고생하지 않으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지금 35살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저축을 한다면 10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10억을 모았다 칩시다. 그런데 노후에 이것을 쓰면서 편안히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평생 그 큰돈을 모으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몹쓸 짓하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을 테니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걱정해 줍니까? 결국 한을 먹고 가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 때 삶의 만족을 얻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살의 정신이 있는 탓입니다.

562호 (2006년 1월 25일)



법흥 스님(순천 송광사 회주)

맛 본 사람만 소금이 짠 줄 안다

불교의 공부는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은 상(相)이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고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정심과 감사심, 용맹심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선은 왜 해야 할까요. 강력한 정신집중이 아니면 번뇌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탕이 달고 소금이 짜다는 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언전불급입니다. 564호 (2006년 2월 8일)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참구하고 참구하면 '답' 나온다

지금 말하고 듣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켜 의문을 참구하십시오. 의문이 붙어서 의문을 가지고 참구하고 참구하다보면 어느 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춤도 절로 나오고 결정신자가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결정신자가 아니에요. 그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모름에 대해서 알려고 추구하면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해 보십시오. 그 몰두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는 말하고 듣는 이것에 대한 참구가 없으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마음 쏟을 데를 찾으니 더욱 더 갈증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참구하고 참구하다 답이 나오면 안식자(安息者)가 되고 그 안식은 시방세계에 가득합니다. 570호 (2006년 3월 22일)



활안 스님(조계산 천자암 조실)

'누구' '무엇' 때문은 다 핑계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면서 수행을 미루고 둘러대고 변명을 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변명도 시방삼세 부처님이 꼼짝할 수 없는 큰 변명을 하면 성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과 고통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해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흉보고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한 생각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572호 (2006년 4월 5일)



천운 스님(해남 대흥사 조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을에 있어

36년 전, 광주에 향림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들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가르침을 펴셨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찬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에게,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진인(眞人)불교입니다. 문자에 갇혀 있지 않고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576호 (2006년 5월 3일)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 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



혜경 스님(화담정사 조실)

먹을 때 염불하면 뱃속이 극락

생명체 모두는 우주만물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의 욕망이 크고, 서로의 존재만 내세우다보니 부딪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욕망을 조금씩 억눌러야 합니다. 그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과 다릅니다.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식물이나 동물을 해칩니다. 어떤 분들은 동물을 해치는 것에만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식당에서는 항상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세요. 그래야 먹어도 극락이요, 뱃속도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581호 (2006년 6월 7일)



효란 스님(연천 오봉사 조실)

마음과 몸 던져 중생구제하라

불교란 내가 원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구제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되는 제일 쉬운 길은 '본원(부처님의 마음)'을 믿고 '염불'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맹세이자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 명호인데, '나무'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몸체입니다. 즉 염불은 부처님께서 마음과 몸을 내던져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동안 나의 과거 80억겁의 업장이 소멸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583호 (2006년 6월 21일)



원운 스님(서울 보문사 주지)

계율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야

불교 40년 만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범죄형태는 갈수록 악독해지고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탓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의 계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은 분명 불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무작정 계율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지킨다는 것 보다 그것의 본뜻을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87호 (2006년 7월 19일)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자식 앞에서 수행하라

요즘의 부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인사를 안 해도, 쓰레기를 버려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놀지 마라' '좋은 일 해라' 고 말해도 자식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그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푸른 허공과 같고 맑은 물처럼 의식이 깨끗하면 누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그 속에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참선수행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590호 (2006년 8월 9일)



천룡 스님(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人災가 축적되면 天災가 돼

인간은 인간중심의 논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문화와 과학을 구실로 핑계만 댑니다. 자연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인재(人災)가 축적되면 천재(天災)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늘이요 부처요 보살입니다.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면 언젠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593호 (2006년 8월 30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

불사는 반드시 福으로부터 시작

불사(佛事)는 성불인연을 짓는 일이니, 불사수행이란 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데, 불사는 반드시 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전(福田)을 알아야 합니다.

복전은 경전(敬田) · 은전(恩田) · 비전(悲田) 이렇게 삼복전(三福田)이 있는데, '경전'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여 참회 발원하는 것을 말하며, '은전'은 부모와 국가와 중생의 은혜를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의지할 데 없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595호 (2006년 9월 13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6 · 끝>



연재를 마치며

"이 선생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불교교리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설명해보겠는데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딪치는 문제들 앞에서 저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사회에서의 이력을 놓고 보자면 저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장경>에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사 하나하나가 적혀 있어서 '그럴 땐 이렇게 살라'라든지, '그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처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세계에 몸을 담고 지내오는 동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그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교교리 해박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조심스레 내 생각을 털어놓을 때 의외로 불교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불교가 뭔지 대충은 안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손사래를 칩니다.

"아, 그런 건 경전에서나 하는 말이고…."

또는 "역시 스님들 말이나 다를 게 없군. 아직 이 선생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요"라고 까지 말합니다. 이 말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놓고는 "그런 건 부처나 가능한 일이고, 살아 보슈, 그렇게 되는지…"라며 일소에 붙여버리는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제게 "살아보기는 뭘 살아봐? 그렇게 살다간 거지되기 십상이고 행복해지지 않는데…"라는 대답이 돌아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깨달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세계를 만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信)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겠다는 것은 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과연 부처님이란 분을 믿어볼만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해(解)입니다. 과연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다거나 강좌나 법문을 듣는 일입니다.

셋째는 실천(行)입니다. 경전에 쓰인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야 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힘들거나 모욕을 잘 견뎌내고 쉬지 않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지혜를 키우는 등의 6바라밀이 그것입니다. 이론으로 따진다면 참으로 싱겁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까짓 거 하자고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하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네 번째는 증명(證)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실천을 해 보았을 때에 자기가 선택한 믿음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인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진짜 사랑을 해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요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제 손으로 직접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들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고 그 어려운 불교교리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습니다만 이 말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부처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제가 쏟아낸 이야기들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경전을 뒤적이고 생각을 거듭해가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헛된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에 취하여 지내오다 보니 제 공부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건승을 빕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귀사의 문을 두드리면 그때는 독자들의 시선이 가장 늦게 닿는 외진 지면을 다시 한 번만 제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대화가 안돼 고민이시라구요?

"의사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책과 집기 등의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탁송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담당 직원은 달갑지 않은 태도로 서류를 꾸미고, 포장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퉁명스럽게 지적했다. 그 때 나의 미국 친구는 그에게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하루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이삿짐을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당신에게 오늘은 유별나게 힘든 날인 것 같이 느껴지는군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 천천히 하세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부드러운 인상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사실 그날 아침에 사장에게 꾸지람을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고.

친구는, "당신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군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힘내세요."라고 격려해주었다. 그는 매우 협조적으로 변하였고, 우리는 기분 좋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의사소통의 심리학> 본문 125쪽 중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한시도 동떨어져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원하는 바가 전달되고 수용되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묵살될 때는 불만족, 좌절감과 더불어 갈등과 불행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대화이며,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평소에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대인관계의 문제점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대화를 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울창한 숲을 헤치고 산등성이에 올라갔는데 저쪽 건너편 언덕에 알록 달록한 색깔의 물체가 눈에 띄었다고 하자. 그것은 거대한 호랑이였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이는 기절할는지도 모른다.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먼저 호랑이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녀석이 배가 고픈 상태인가? 낮잠을 자고 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가? 혹은 햇볕을 쬐려고 나온 것인가? 호랑이를 주시하고 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저런 문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할 때도 이와 같은 태도가 요청된다.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나 갈등을 타협하고 조절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다룬 책이 발간됐다. 대화의 심리학 시리즈 3권이 그것. 1권 <대인관계의 심리학>, 2권 <자기주장의 심리학>, 3권 <의사소통의 심리학>으로 구성돼 있다.



대화의 심리학 세트(전3권)
홍경자 지음
이너북스 | 2만6700원

이 책에서 저자인 홍경자(前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박사는 "의사소통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밝힌다.

특히 날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활하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존재해야 할 사랑, 관심,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는 부부들을 위해 '바람직한 부부간의 대화기법'도 심도 있게 다룬다.

가정의 주체는 부부이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 단란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은 관계요 대화다. 단 하루도 누군가와 말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과 감정 없이 지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행동은 의사 소통이다.

따라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하여 의연하고, 담담하며, 공감적으로 자기주장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상대방에게 억눌리지도 않고, 이와 반대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위협하지도 않으면서 피차간에 허심탄회하게 할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소개한다.

또 공간적 거리의 활용, 신체적 접촉, 표정, 시선 맞추기, 몸 움직임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술은 물론 분노를 조절하고 원활하게 대화하는 법 등 대화의 기술들을 들려준다.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과 확신과 배짱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기술, 특히 세련된 방법으로 부탁하고, 거절하며, 비판하는 사례도 살핀다.

이밖에도 주로 일 대 일의 대면관계에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표현하며 의견 차이나 갈등을 타협하고 조절하여 풀어 나가는 의사소통, 즉 기분 좋고 문제해결적인 대화, 즉 '멋진 대화'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

멋진 대화란 문학적이고 감미로운 표현 방식의 대화라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대화일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 강추

조근조근 들려주는 우리미술의 아름다움



옛 그림의 마음씨 이우복 지음, 학고재

이우복 前 대우그룹 부회장은 조선미술에 조예가 깊다.

책에는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미술에 대한 애착과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 미술의 애호가인 저자 이우복의 삶과 우리 미술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 책은 유희강, 임창순, 등 서예 스승들, 이용희, 최순우 등 미술 학자들과의 살가운 만남을 갖게 한다. 또 함께하지 못한 정선, 김홍도 등 조선 후기 화가들과 그림을 통해 교유하는 듯한 기쁨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유적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발견한 삶의 여유도 전한다. 이처럼 이 책은 개인사부터 조선 미술사까지 저자가 전 생애를 바쳐 사랑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책 내용의 반은 저자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고 반은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그림, 도자기 같은 미술품을 설명 해주는 이제 막 우리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진솔한 삶과 생각, 미술에 대한 넘치는 사랑, 많은 예술가나 학자들과의 교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hugh83, lifelog.blog.naver.com/hugh83)

중국 대표 교양서 훑다보면 중국이 보인다



교양으로 읽어야 할 중국지식(4천년 중국문화의 원류와 만나다)
다케우치 미노루 지음, 양억관 역, 이다미디어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여러 대표적인 중국의 서적들을 소개해놓은 책이라는 것이다. 깊은 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다만 중국 문학의 흐름이나,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여러 책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무척 마음에 들었다.

지금도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도 관심 있게 보았던 도교의 세계관이 소개되어있는 <포박자>, <회남자> 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있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보통 번역서의 소개 글이나 역자의 말 등등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글들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책을 소개하고 있어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다.

두껍긴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히 읽어도 좋고, 차례를 펴놓고 좋아하는 작품들의 내용을 찾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satomi196, yes24.com/Goods)

책속의 밑줄긋기



○…봄꽃들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다른 무엇으로 꾸미지 않는다. 봄꽃들은 온전하게 알몸이다. 그 연한 알몸까지 그대로 드러내며 봄을 맞는다.

봄꽃들은 푸른 잎이 피기도 전에 먼저 피어나고, 자신의 몸을 봄바람에 모두 떨어뜨리고서야 비로소 잎들에게 신록의 잔치를 허용한다. 봄꽃만이 낙화의 분분함을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시킨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부끄러운 고백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봄꽃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서로에게 드러내었던 적이 있었는가?

스스로를 둘러 감싸고 있는 가식의 껍질을 벗어던질 용기를 제대로 가져 본 적이 있었는가? 온갖 치장으로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깨끗하게 몸을 던져 새로 피어날 나뭇잎에게 신록의 자리를 준비해 줄 아량이 있었는가?

우리들의 만남을 봄의 환희로 승화시킬 수 있었는가?

피어 있는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생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 것인가?

-<작은 기쁨> 본문 116쪽 중에서, 권영민 지음, 샘터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 진 쑥 조 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알 칼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액자 / 지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천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 / 1월21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051-545-2460
금강경 / 1월28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발송안내

제1기 수행 교실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3개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최고의 강사들에 의해
격조 높은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 육 내 용
●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와 방법 - 붓다락키타 스님(보리수 선원장)
●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법 - 원철 스님(조계종 기획국장)
●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와 공관법 -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
■ 교육일시 : 2007년 1월 16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유마선원 수행교육원 ☎ 02)737-8227
■ 위 치 : 종로구청옆 두산위브 217호 (지하철 종각역, 안국역 하차)

습도 조절만 잘해도 감기 걱정 '뚝'



차가운 날씨로 몸도 마음도 움추러드는 겨울에는 야외활동이나 운동시 골절상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젖은 수건 · 화초를 가까이

▷ 감기

겨울 감기를 '당연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기다. 특히 감기는 그 자체보다 다른 질환을 동반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일찍 자고 해가 뜬 후 활동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다. 아침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해 몸을 각성시킨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단 실내를 너무 덥게 하면 땀이 지나치게 흘러 건강에 좋지 않다.

감기는 추운 공기 보다는 건조한 실내 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내는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주 해 습도를 조절한다. 젖은 수건이나 화초를 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감기를 예방하는 기본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칡차나 맥문동차, 생강차, 계피차 등을 끓여두고 수시로 마신다. 음식으로는 조나 수수, 콩, 팥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성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먹고 동지 때 팥죽을 끓여 먹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둔한 옷 가급적 피해야

▷ 낙상 예방

노인들은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이 떨어지므로 넘어지기 쉽다.

특히 골절손상은 치료 후에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낙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눈이나 비 오는 날은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는다. 외출시 모자와 장갑을 필히 착용한다. 또한 바깥출입을 할 경우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둔한 옷은 입지 않도록 한다.

집안에서의 낙상도 주의해야 한다. 책이나 옷가지 등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카펫이나 욕실 발판 등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럼 방지 깔창을 깔아둔다. 변기와 욕조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일 손목이나 발목이 삐었다면 다친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리고 응급처치로 얼음찜질을 하고 붕대로 압박해두는 것이 좋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병을 키우지 않는다.

> 겨울 감기 주원인 건조한 실내 공기탓
> 호흡기 점막 마르지 않게 수분 공급을
> 평소보다 일찍 자고 해 뜬 후 활동해야
> 새벽엔 운동 삼가고 준비운동 충분히



겨울철 건강관리 이렇게

쌀쌀한 바람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겨울은 건강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철에는 콩팥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심장의 기운이 쇠약해진다"며 심장병을 앓거나 고혈압인 사람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최근 고혈압환자가 새벽 운동을 하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수칙' 을 발표하는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한다.

혈압 주기적으로 체크

▷ 뇌졸중 예방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졸중 선행질환을 평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찬바람을 쐬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불 속과 방안의 온도 차가 적게 나도록 난방에 유의한다.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보다는 얇고 보온성이 좋은 것을 준비한다.

운동은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혈관 수축이 활발해져 혈압이 오르는데, 이때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면 심장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

5분 찜질욕 후 10분 휴식

▷ 찜질방 사고 예방

전문의들에 의하면 적당한 찜질욕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근육조직을 부드럽게 해 근육통이나 어깨 결린 등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나 하지정맥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찜질방 이용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술을 마신 후에는 몸 속의 수분이 부족한데,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심하게 흘리면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찜질방을 이용할 때는 30분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5분 정도 찜질욕을 한 후 10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찜질방을 이용하고 난 후에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 건조를 막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43> · 끝

표고버섯 깐풍기와 표고버섯전





저는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후 다음카페나 싸이월드 클럽 등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네티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제가 요리를 한다는 사실에 무척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게 한 회원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찰음식엔 고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기가 들어 있는 것 같은 맛을 느끼게 할 수는 없는지요? 콩 가공식품인 콩 단백질이 아닌 자연의 맛으로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채식 뷔페에서는 고기 대신 콩 단백질로 만든 음식으로 고기의 맛을 내곤 하지요. 저 역시 그 메일을 받고 '일반인들이 채식 재료로도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찰에서는 고기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버섯 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버섯을 이용한 음식들을 개발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각종 버섯을 이용해 볶아보기도 하고 지져보기도 하고 튀겨보기도 하면서 연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개발한 요리가 바로 표고버섯깐풍기와 표고버섯전입니다. 처음엔 표고버섯을 아주 곱게 채 썰어 물에 충분히 불렸다가 메밀가루로 전을 부쳐보았습니다. 표고버섯전을 먹어 본 분들은 모두 "재료가 뭐냐" "너무 쫄깃쫄깃하다"며 재료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쫄깃한 식감에 버섯의 향긋함이 더해져 인기가 폭발적이었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깐풍기는 튀긴 닭고기에 매운 양념을 한 중국요리인데, 표고버섯을 이용해 만들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드는 법



<표고버섯 깐풍기> 재료: 채 썬 말린 표고버섯 1줌, 청피망 • 홍피망 • 노란 파프리카 1/2개씩, 오이 1/2개, 소금 약간, 식용유, 튀김반죽(전분가루, 통밀가루 적당량), 소스(두반장 소스 1큰술, 물 1과1/2컵, 소금약간, 설탕 1큰술, 참기름 약간, 녹말물 약간)

① 채 썰어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물기를 꼭 짠다. ② 준비된 표고버섯을 튀김반죽에 버무려 준 후 기름에 두 번 튀긴다. ③ 소스재료 중 물을 붓고 끓인 후 녹말물을 뺀 분량의 재료를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든다. ④ 모든 야채는 한입크기로 잘라준다. ⑤ 만들어진 소스가 끓어오르면 녹말물을 넣어 걸쭉하게 만든 후 야채와 튀긴 표고를 넣고 버무려 완성한다.



<표고버섯전> 재료: 채 썬 말리 표고버섯 1줌, 식용유 약간, 전 반죽(메밀가루, 녹말가루 적당량), 양념장(삭힌 고추 3개, 간장 1/2큰술, 국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① 채 썰어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물기를 꼭 짠다. ② 반죽 재료로 준비된 메밀가루와 녹말가루에 불린 표고버섯을 넣고 되직하게 반죽한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 놓는다. ④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한입크기로 전을 지져낸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 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 오행의 조화.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수시접수

효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향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세상을 사는 이유 (하)

이권상 (충북 영동군 영동읍)



그림 · 문병성

지체장애, 가족과의 불화,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고통들을 술로 해결하며 살아 온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나 하나는 괜찮지만 아이들과 아내가 무슨 죄를 지어 고통을 받으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래! 괴롭고 고통스런 나를 부처님께 맡기자' 이렇게 부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75년도에 중앙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재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 그러나 술 때문에 졸업은 참으로 어렵게 했다.

대학을 졸업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내 삶을 바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 나를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민끝에 나는 평생에 해야 할 두 가지를 정하고 서원을 세웠다. 하나는 술을 끊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1998년 직장을 시골(충남 장항)로 옮기면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아침 3시 30분에 기상하여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마음공부를 위해 병상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일기를 쓰며 오전을 보내고 직장에 나가 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니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하는 듯 했다.

물론 이 기간동안 금주를 했다. 직장을 옮기고 회식자리에서 2번 정도 술을 약간 먹은 것 이외는 금주한 것이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금주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아상에 집착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삶인가를 부처님께서 보여 주시기 시작했다.

장항에서 생활한 지 정확히 두 달 후에 큰 아이 (당시 고등학교 2년)가 '기흉'이라는 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세 번이나 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처음에 공기만 빼는 수술을 했는데 재발되어 두 번, 세 번의 수술이 이어지고 3개월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큰 아이는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했다. 대학보다는 우선 건강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을 원망했다. '부처님! 세상에 장애자로 태어나서 주위로부터

교통사고로 병원생활하며 참회 눈물 흘려
7년 만에 술에서 해방, 가족들 웃음 되찾아
어려운 이웃 돕기 결심 … 세무사 공부 시작

온갖 냉대와 멸시를 이 정도 받고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었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다. 아들은 아파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병원을 방문할 때도 술에 취해 있었으니 나를 바라보는 집사람과 아이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런 일이 있다고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술이 깨서는 깨닫곤 했지만 퇴근 무렵이면 다시 모든 것이 귀찮고 오직 술만 생각이 났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리고 술이 깰 때쯤이면 속이 너무 쓰려 해장술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뎠다. 이미 알콜중독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 술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1999년 4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대퇴부 수술을 받았다. 10주간의 병원 생활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수술대 위에서 죽음을 보았고 내 진실한 주인공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죽으면 없어질 몸뚱아리, 죽으면 없어질 영혼, 죽으면 모든 것이 내것이 아닌 것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착하고, 분노하고, 얻으려 했을까'

비로소 아상을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착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제행무상인 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을 자학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단 말인가? 일순 노여움과 미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흘러 내렸다 분명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1999년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 "알콜중독자 이권상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죽어 땅속에 묻혔노라"고.

2000년 1월 1일부터 술을 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해보면 1994년부터 1999년 까지 6년 동안 위기 속에서 살았고 자칫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을 포기한 삶이 되었을 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피력인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후부터 7년 만에 술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큰 아이는 대학교에 입학해 1년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마친 뒤 복학을 했고, 둘째도 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가정화합을 이루어 냈으며 내 건강을 되찾은 일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당위성, 바로 '꿈'을 되찾은 것이다. '정년 때까지는 가정을 위하고 그 후부터는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는 것이 나의 소박한 꿈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다. 재력 없이 마음만 뒤따르는 봉사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체장애자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지적인 도움이고, 물질적인 도움이라는 판단도 했다.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 편에서 같이 고민하고 괴로움을 나눈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 비록 지금은 소쩍새 마을과 너무나 작은 인연을 맺고 있지만 반드시 좀더 큰 인연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년 동안 병상일기처럼 써 온 일기는 수행일기가 되었고, 나를 돌려놓은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력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으며 그것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5,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학 디지털세상!

해당되는 버튼만 누르면 운세의 내용이 척척



이렇게 버튼만 누르세요

◆실전사례 : **정묘일 오시(午時)에 고객이 왔을때** 먼저 옆의 그림과 같이 말의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운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첫 마 디 : 현재의 운세는 몸이나 가정이 쇠퇴하고 반복되는 일이 자주 있으며 모든 일에 지체가 되거나 실패의 일이 있는데 범의 날짜, 양의 날짜, 개의 날짜가 될 때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는데 혹은 재물이나 여자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음력 1, 6, 9월이나 또는 범띠, 양띠, 개띠의 사람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이 있으며 문서, 계약, 시험의 일도 이런 날짜및 사람의 띠가 이러할 때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

디지털 운명학 CD의 탄생과 함께 변화된 사례들

1. 운세에 대한 배움이 필요없고 2. 구입즉시 상담이 가능하고
3. 길흉이 되는 날짜및 사람까지 알 수 있어 적중률에서 으뜸이고
4.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을 할수 있어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다. (무료 3개월)

▶ 5,000년만의 공개되는 버튼식 형태의 운명학 CD의 4형제 [가격 및 형태]

육 임 학	수 리 학	행 년 학	일 진 학
3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200만원 [버튼식]

● 구입처 : 옥두교육문화센터 (계좌 : 농협 235086-56-150084 예금주:최규섭)
(3일이내 배송완료, 제품반환시 상품도착후 1주일이내 반드시 키락 동봉)

운세의 배움이 전혀없는 사찰의 스님,상담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운세박사가 될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들 1577-1622

WWW.운세와미래.COM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종 합 탱 화
600만원에 구입한 손으로 직접 그린 종합 탱화- 230만원에 판매
(가로 2m 50cm × 세로 1m 80cm)
대웅스님
011-590-2555(부산)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사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대구 도심 불교대학 사찰에서 조계종 재적 비구승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153-9416

평생 도반 신의와 믿음으로 남은 여생 함께 기도하며 살고 싶은 신심이 건강한 을미생 비구 승입니다. 아담한 기도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보살님 인연바랍니다
018-406-3073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황 토 삼 백 초
신비한 기적의 약초 산삼과 동등한 氣발생
● 노폐물 배출 / 청혈작용
●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탁월
▷건강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041)932-3601

사주 명리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작명 · 적성 · 기타
주1회 (2시간 30분씩)-6개월 완성
(기초에서 격국 용신 임상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빌딩 주차장 앞 한국명리교육원
02)756-484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조계종 산중사찰이며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내집처럼 후원을 맡아 보실 신심있는 40~50대의 공양주를 구함.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자기 수행인 지장기도를 할 본종인 비구 · 비구니를 수행 화합이 되는 스님으로 환영합니다
연락처 : 소백산 내원암
경북 054)653-1180

모 십 니 다
불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사찰 중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십니다. 약간의 재력과 덕망이 있으신분 우대함
02)733-0108

도량이 여법한 사찰에서 무보시 불사 도우며 더불어 수행코자 합니다.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교의식, 서화 등 등에 능통한 법랍 31년 50세 청정비구입니다
011-854-81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청지방
011-9284-61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출 · 퇴근 가능
010-4813-9707

기도하시거나 공부하실 비구스님 한분 모십니다
▷경기도
011-9126-22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전
010-5255-0385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50대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임휴암
053)632-4844
053)641-4844

비구니도량에서 함께 수행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연락 바랍니다
▷부산, 나이 50세 이상
011-832-491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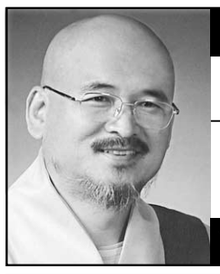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30~50대, 용모단정
011-828-3618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50대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임휴암
053)632-4844
053)641-4844

경리보살 구합니다
(신심있는 PC가능자)
▷ 4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수목장 원하시는 사찰나무판매 합니다
나무는 주목 20년생으로 최상품.
500그루 나무를 반듯하게 다듬어 놓았으며 수목장에는 주목이 최고입니다.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해인사 뒷편)
◎ 가액 : 2,000만원 싸게 공급
연락처:061) 833-0945 / 011-9601-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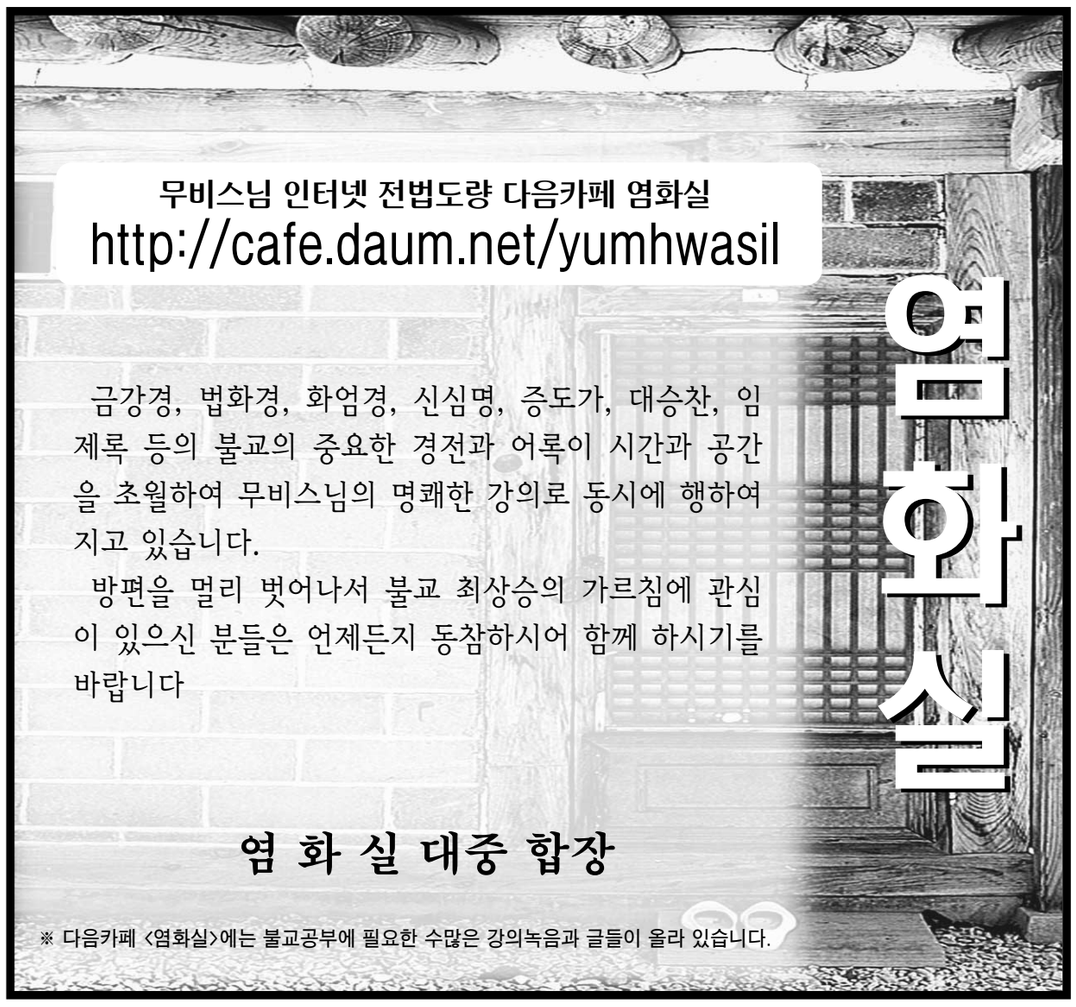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촛불잘밝히는방법 ★ 장사(사업) 잘하는방법 결혼인연
행복을 찾아주는 영가천도
직장인을 위한기도 ★ 가족이함께기도
소년 · 소녀가장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주 지장경 신주**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업장소멸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인 ● 총무부원장 : 허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신심명, 증도가, 대승찬, 임제록 등의 불교의 중요한 경전과 어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의 명쾌한 강의로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방편을 멀리 벗어나서 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 화 실 대중 합장

※ 다음카페 <염화실>에는 불교공부에 필요한 수많은 강의녹음과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양양
- 법당 및 요사: 70평
- 부지: 1,800평
- 가액: 2억 8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상담 후 결정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서울
- 부지: 만평
- 법당: 27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입구)
- 4층건물의 3,4층 (전체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일체 양도

02)400-3833
016-9220-50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031)938-1954
017-304- 2260

포교원건물(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대지: 121평
- 총건평: 150평
- 건물: 3층 건물
- 가액: 3억 3000만원

010-5688-49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경 기 부 근 사 찰 과 교 환 원 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인근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 평수: 300평, 건물 2동
- 법당 20평 및 요사채 (방7개, 전통한옥)
-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건강악화로 급 안내

017-578-281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대지 591평, 법당 18평
- 요사채 23평 (화장실3, 방3, 큰 거실1)
- 조립식 건물
- 가액 : 1억 5000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 찰 안 내
〈 사 찰 부 지 〉
- 위치:부산동해비닷가
- 부지: 600평
- 남향 8m도접
- 바다전망 확실
- 가액: 4억 5천

〈 사 찰 〉
- 위치: 부산근교
- 천하절경 낙동강변
- 부지: 700평
- 법당: 30평, 요사 60평
- 기타건물 2동
- 가액: 6억

〈 사 찰 〉
- 바다절경 한눈에 보이는 도심 속의 전망 최고의 사찰
- 부지: 1500평
- 목조법당: 30평
- 요사 및 기타건물 3동 대형
- 가액: 18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상의 위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소재
- 평수: 50평
- 시설: 삼존불, 신중 산신 최상의 음향시설 시스템 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2동 진시장 자성대 파출소 중간
- 3층건물 3층, 평수: 20평
- 기름보일러 임법당, 상담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800만원 월 27만원

011-839-3881
010-9720-9901

사 찰 안 내
- 위치: 군산시 근처
- 대지: 400평, 3층석탑(문화재)
- 절위로 등산로 있음, 산세와 시내와의 조화
- 가액: 3억 7천짜리 2억 8천까지 급히 양도

종단 타파 개인등기로 명의가 나있으며 유치원과 납골당도 할 수 있는 자리로써 되도록 서울분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063)451-2410
010-6270-2410

멋진비구니스님토굴터
마을과 인접한 竹林으로 둘러 있음
- 경북 영천 북안 원당 대지 206평 (평 9만 5천원)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등리(토굴) 대지 100평, 건평 20평 (가액: 1천 2백만원)

010-8852-2788 이범일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사 찰 안 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남문)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평수: 총 3,700평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넓은 정원, 각종 유실수 잔디밭
- 가액: 보증금 250만원 1년 350만원

017-813-912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조용하고 아늑한 정남향 (다용도 가능한 관리지역)
- 평수 : 1,030평
- 가액: 평당 6만원

011-570-13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 1층 슬라브, 2층법당 24평 요사채 1층, 산신각 1동
- 가액: 8500만원

011-544-9777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75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 하며 공부 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토굴겸포교원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대지: 100여평
- 건물: 법당 및 요사채 60평
- 시설: 깨끗하게 꾸며져 있음
- 전세: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1-594-1526

최고명당절터안내
공들이는 보살님께서 많이 찾으시는 신비의 소나무
- 위치: 경북 군위군 고로댐 상류지역
- 평수: 3,000평
- 가액: 5,000만원 평당 17,000원
- 산세경관 특급, 관리지역 전기, 도로 인접

010-8312-11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35평
- 법당, 방3, 욕실, 넓은 거실
- 뜸방 갖춰져 있음
- 가액: 전세 5,500만원

017-236-1775

사 찰 안 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 1동
- 가액: 3억(융자 8500 포함)

018-514-6009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산청
- 대지: 500평
- 요사채 2, 법당1
- 가액:1억 5천만원

010-8351-8989

작은포교당(1층)
- 위치: 부산광역시
- 법당: 4평~5평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지장보살) 신중탱화, 산신불, 산신탱화
- 법당비품일체
- 공양간 겸거실 2평, 화장실 1평
- 가액: 전세 400만원 월 15만원
- 전체시설비: 300만원

010-2309-9102

인비록 人秘錄 www.heaven777.com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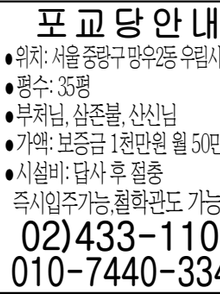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문의: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063) 643-7285 / 팩스 063) 643-778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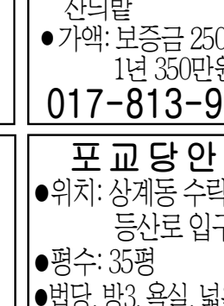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2년에 고등학교 졸업장!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처럼운영하는 미륵사 부설 교육청지정 학력인정학교임 학령기를 놓친 스님 또는 불자님에게 고등학교 졸업기회부여!

■ 자 격 : 중학교 졸업자
■ 모집기간 : 2006. 12. 29까지
■ 구 분 : 보통과. 전통예술 (불교미술:단청,탱화, 불교음악:범패)

※ 본교를 졸업하면 범음범패는 물론 대학을 진학할수 있읍니다.

■ 홈페이지 : www.yeun.sc.kr 주간.야간운영
■ 문 의 : 055)583-6300 011-1752-6800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새해맞이 수행 다이어트 특수 비법 공개!

70회 3000배 용맹정진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쏟아나는 특별한 3000배! 큰 업장과 노폐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가슴이 뻥 뚫려서 새털처럼 가벼운 몸에 부처님 자비광명의 밝은 기운이 꽉 채워지는 특수 비법의 새해 선물 공개! 21세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인 효과가 탁월한 세계유일의 3000배!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2006년 12월 31일 (일요일) 저녁 9시~ 2006년 7월 30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분당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도 우선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첨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첨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 네.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아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에도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아니 삼천 년 전이라고 합시다. 부처님께서 그때 방편으로 하셨으니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다 놔야 된다 하는 경도 있을 거고, 또는 계율을 아주 돈독하게 지켜라 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고 나면 계율을 지키라고 말을 안 해도 범하지 않으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게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계(五戒)도 못 지켜요. 계율이라는 거에 걸려서 말이죠. 나는 오계(五戒)를 설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때에 따라서 부득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살생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를 죽였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살, 내 생명,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도리를 알라 이랬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괜히 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 죽여서만 죽이는 게 아닌 일이 또 있죠. 남의 식구들을 몽땅 짓밟아 버리는 거, 하나 죽이면 식구가 전부 못 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무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집할 때 딱 간추려서 해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을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 · 지(地) · 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깐. 천 · 지 · 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천 연화장불(大千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 그것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돼.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림하는 데 걸음 떼어놓으시는데 한 찰나에 떼어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떼어놓은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니라.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 원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떠한 악의 덩어리가, 마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선 보이지 않는 데 다니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때 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내가 된단 말입니다. 업식으로 몸뚱이가 뭉쳐졌다고 그랬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무 개, 백 개, 천 개, 백억으로 돼 가지고선 누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 가지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걸 참 어떻게 되짚어서 얘길 해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생활이 그대로 천체심성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물질로써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와 앉았어도 못 보는 걸 어떡합니까? 전자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가 연구하는 데 와 앉았어도 몰라. 주욱 앉았어도 몰라. 그럼 그 노릇은 어떡합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줄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참,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의학 박사가 말입니다, 죽었는데, 참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무척 애썼는데 후배들은 도대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어떤 남자가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하니까 그냥 그 박사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남자는 그 박사가 전자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바로 태어난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타의에서 들어와도 자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의의 선배가 죽어서 영령으로서 나한테 침입을 했어도 선의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공부는 악의적으로 했든 선의적으로 했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걸로 삼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주 거기에다가 딱 놓고 '이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한다면 그게 자의가 되거든요.

이것을 체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악마라도 다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면 천지가 편안해. 천지가 다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해. 모든 사생(四生)이 다 편안하고, 사람 될 율이 100% 더 많게 되고, 그 몹쓸 인연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불국토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국토(佛國土)가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여러분이 참, 꿰뚫어서 자기를 자기가 먼저 알고 또는 남을 알고 상대를 알고 함으로써 둘이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꽃이 피게 되고, 만 가지 열매가 맺고, 만 가지 맛을 아니 이것이 불국토다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밖엔 없으니까요.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길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다면 나도 거기 첨보되어 있고,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가 스승이고, 부처는 중생들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평등진리죠. 따지고 본다면 어떠한 회사에 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 안 해주면 사장이 어딨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고요. 이것은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귀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쳇말로 이러는 거지, '깨달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발전할 겁니다'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 이게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나를 꼭 만나야만 하는 줄 아시지만 여기 스님네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마음 내 주십시오." 하고만 가도 됩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꼭 봐야 하고 여러분한테 꼭 목탁을 쳐서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았지도 않아요. 나는 결심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피해나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려가지도 않고 혓바닥을 깨물고 죽겠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이런다면 아예 살지를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살지를 않아도 고만, 살아도 고만입디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툰다 하는 것은, 별의별 게 다 돼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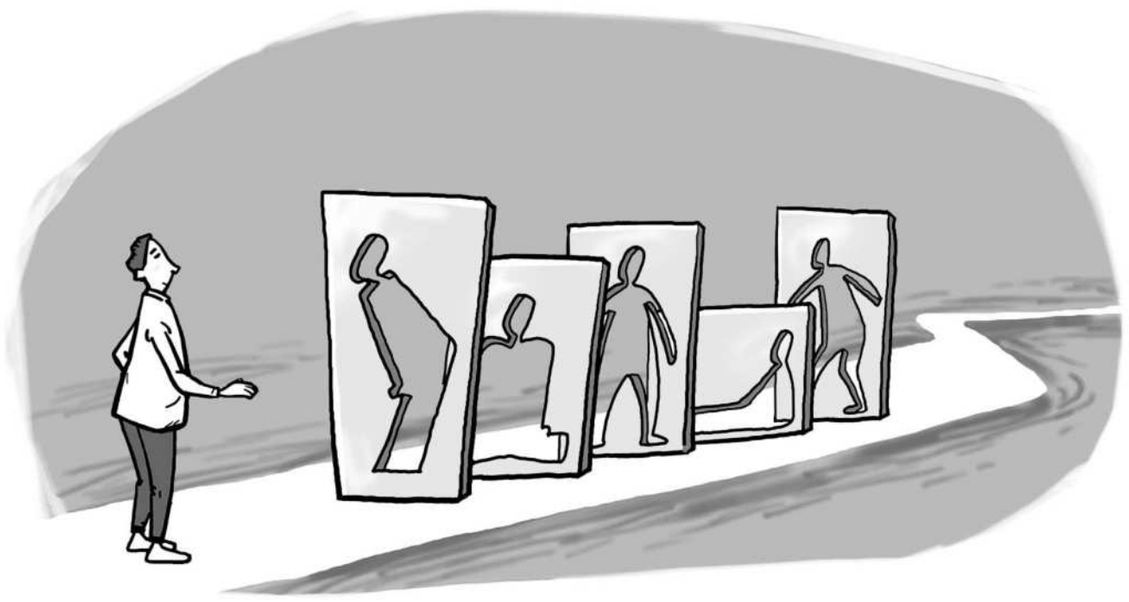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를 먼저 알고 상대를 알아야 둘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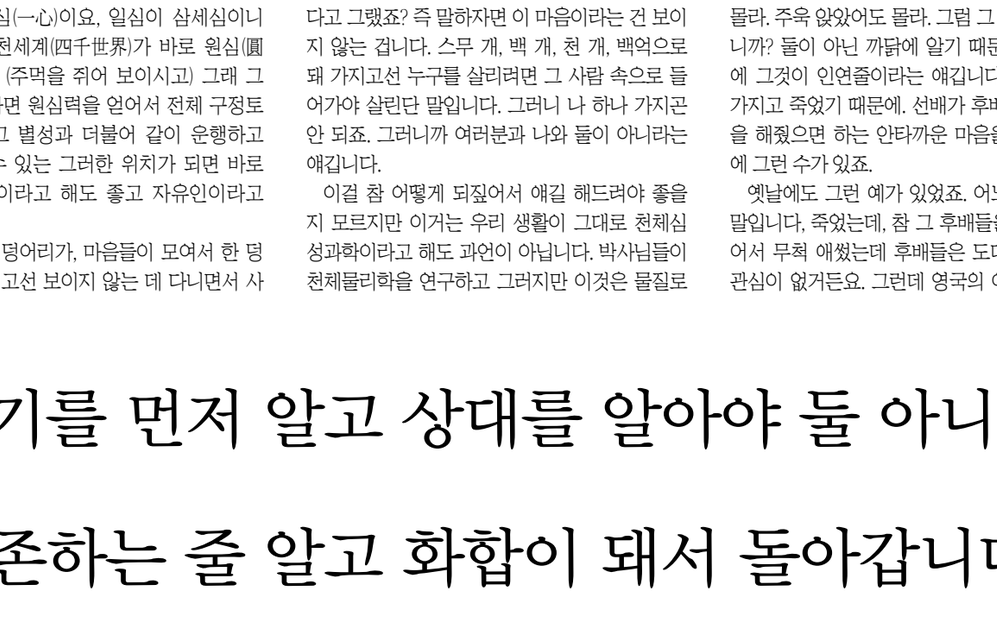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마음도리를 잘 파악해서 진실하게 나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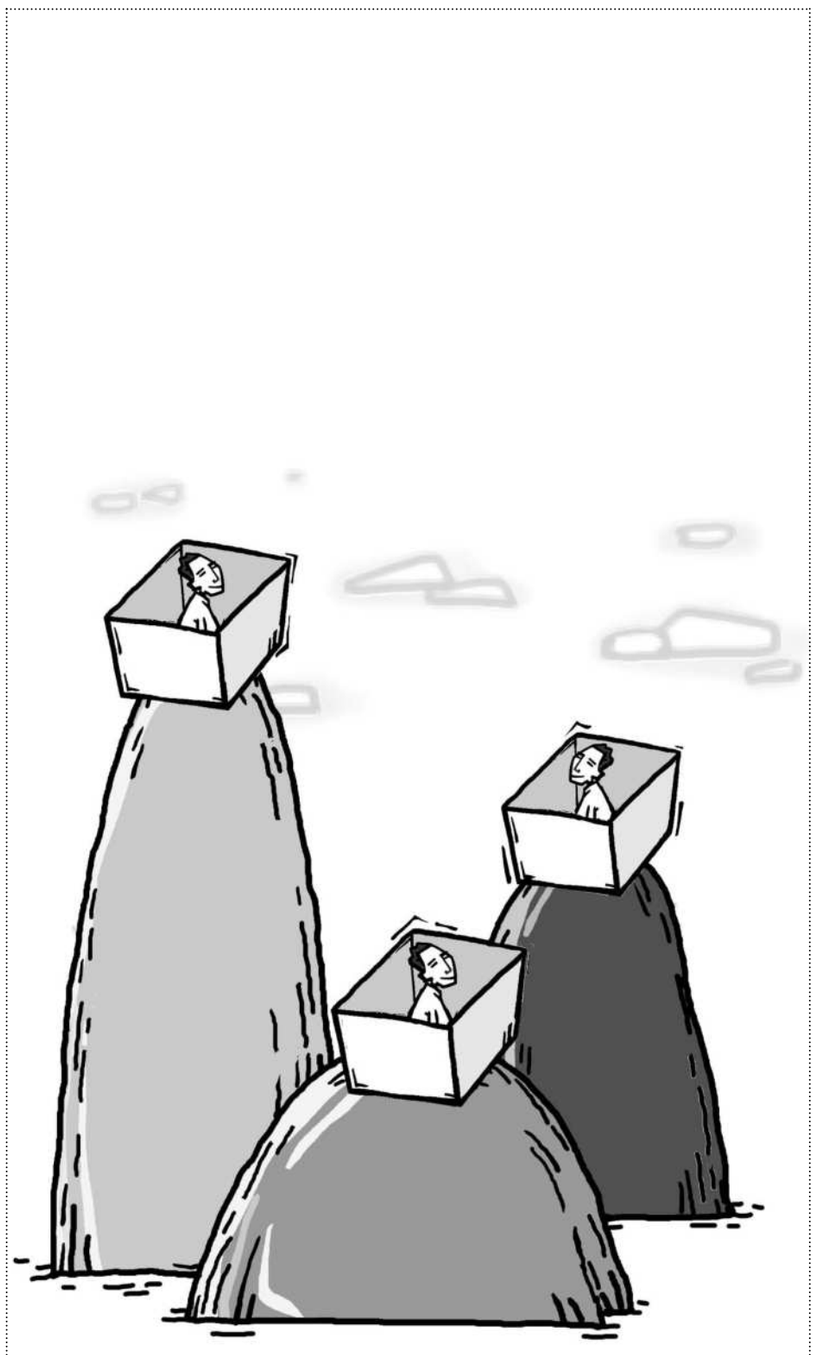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7면에서 계속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 스님네들한테 연락하시면 한시라도 빛보다 더 빠르게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천리라도 좋고 만리라도 좋고 강이 끼어도 좋고 산이 높아도 좋습니다. 산이 높아서 못 갈 일도 없고, 물이 깊어서 못 갈 일도 없고, 불구덩이라서 못 갈 일 없고, 죽은 세상이 돼서 못 갈 일 없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자1(男):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득도한 사람이 죽어서 동물의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득도했을 때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의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득도한 사람이 왜 동물이 돼요, 또? 득도한 사람은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업식으로 잘못 저질러서 동물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득도를 했으면 벌레까지 된단 말입니다.

▲질문자1(男): 벌레가 됐을 때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큰스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방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와 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보면 한 세상이 오대양 육대주처럼 그렇게 장광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그런 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집어내서 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벌레도 건질 수 있는 거죠.

부처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가 되고, 불쌍한 거지를 도우려면 거지가 되고 이렇게 장광하게,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벌레가 되는 것과 자기 위해서 벌레가 되는 건 또 다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깨달아봐야 그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말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은 뜨거운지 찬지를 몰라요. 이 물컵을 내가 줘도 '찹니까, 뜨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은 소용이 없어. 직접 자기가 먹어봐야 이게 뜨거운지 찬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자1(男):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까지 그 의식 변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요?

▲큰스님: 이런 얘길 한번 하죠. 그것도 맛에 불과한 거지만 그 느낌을 제삼자가 얘길 해주려면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도 일찌감치 잃고 외딸을 혼자 키웠어요. 아주 애지중지 길러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죠. 이건 현실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사십구재(四十九齊) 때도 그냥 몸부림을 치고 울고 그래요.

진짜 공부는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다 받아들여서 모두 내 걸로 삼아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 스님께서 우리 딸을 천도 좀 시켜주세요. 죽었어도 어디로 갔는지, 저를 좀 알게…."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한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냥 성가시게 구는데 못 살겠어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딸이 아무개네 집에 태어날 테니까 다음에 그 어린애를 낳걸랑 수양 손자로 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애지중지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죽는다고 하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죽질 않고, 이제 재산이 있건만도 뭐 팔러 다니는 척하고 그 집을 자꾸 드나들었던 모양이죠. 그 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딸 얼굴하고 똑같애, 똑같애 아주. 점 하나 요기 (목 부근을 짚어 보이시고) 있는 거까지 똑같애. 그래 어머니가 너무 못 잊어 하니깐 그렇게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했고요. 길잡이는 그런 것 하는 사람이지 뭐 귀중한 사람 아니에요. (대중 웃음) 밑도 씻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똥친 막대기라는 소리도 들을 만하죠. 부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으로서 참 그 딸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수양 손자로 삼아가지고 그 수양 손자한테 재산을 다 그냥 준 거예요. 만날 업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젠 돌아가시고 없겠죠.

▲질문자1(男): 그러니깐 자기가 체득을 하지 못하면 전혀 짐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스님: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걸 알려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도 아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알려면 벌써 나부터 알아야 돼요. 당신이 당신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질문자1(男): 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아는 과정을 좀 더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대중 웃음)

▲큰스님: 앞당기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세상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전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질문자1(男):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하고 두뇌하고의 그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스님: 마음이라는 건 통신이에요, 통신! 마음내는 것은 통신이요,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움죽거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 그것은 한마음의 근본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냈다 하면 벌써 여기요, 어디 갈 때 (오른쪽 무릎을 만지시면서) 돌에다 부딪쳤어요. "아이구, 다리 아파!" 이럴 때 벌써 통신이 돼요, 머리로. 내가 이거 "아이구! 아이구! 다리야." 이러고 할 때 벌써 이 머리로 통신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벌써 발끝 손끝까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통신망이 그렇게 세포를 통해서 다 통신망이죠. 이게 혹성이라면 세포 전부가 통신망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합창단 보살님들의 선법가 공양이 있겠습니다.

▲큰스님: (합장하시며)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나 봐요. 여러분이 이 뜻을 잘 파악해서 진실하게만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대성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대성공의 자유인이 될 겁니다, 아마.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식 (범음 범패) 수련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1. **서울 본대학 교육 안내**
   - ◆ 개강일자 - 2007년 1월 8일(월) 오후 3시 (목탁 지참)
   - ◆ 출 강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 ◆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교육 안내**
   - ◆ 개강일자 - 2007년 1월 6일(토) 오후 2시 (목탁 지참)
   - ◆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시(3시간)
   - ◆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 ◆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 (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5.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불자 세상보기 –송년 특별칼럼

‘맘짱’이 되자

월호 (쌍계사 강원 강주)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얼굴이 바뀐다.’

어떤 TV광고에 한 학교의 급훈으로 이런 내용이 떴다. 아울러 지독히 못생긴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 꿈을 꾼 여학생이 기겁을 해서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채근하는 것보다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 광고를 보면 남자들만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들도 잘난 남자를 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가 환영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기야 예뻐 보여서 손해 볼 건 없다.

얼마 전 자동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길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반응실험을 본 적이 있다. 옷 잘 입고 예쁜 여자와 대충 헐렁한 옷에 인물이 별로인 여자가 번갈아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자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역시 옷 잘 입고 예쁜 여자의 경우는 많은 차들이 멈추어 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다가왔다. 심지어는 지나쳐버린 차가 다시 후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헐렁한 옷에 인물도 별로 인 여자는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서는 차가 거의 없었다.

가장 우수한 종자를 택하여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도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매체를 통해 세계적인 미남 미녀들이 우상처럼 등장하여 갖가지 섹시한 몸짓과 표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어찌 얼짱과 몸짱 신드롬을 탓할 수만 있겠는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천국이 되었다고 한다. 탤런트는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조차 성형수술을 받고자 줄을 서고, 심지어는 관상성형까지 유행하게 되었다니, 애교로 봐 주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관상성형이란 손금을 째거나 코 수술을 하는 등으로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손이나 얼굴의 살과 뼈를 째거나 깎아낸다고 운명이 바뀔까? 관상을 바꾸는 방법은 따로 있다.

옛날에 서앙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다. 그때 서울에는 왕씨라는 관상쟁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적중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에 서앙도 관상을 보았는데, 왕씨는 서앙의 얼굴을 보더니 ‘그대 관상에는 후손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소?’하고 탄식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서앙은 과거에 급제하여 서안의 군수로 임명받았다. 부임하는 길에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였는데, 자못 예쁘고 아름다웠다. 사연을 들은 즉, 본디 관리의 딸로 양가집 규수였건만 도적들에게 약탈당해 팔려 왔다는 것이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 매매계약서를 불사른 뒤, 혼수를 마련하여 좋은 선비에게 시집보내주었다.

그 후 다시 왕씨를 만나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감탄했다. ‘그대의 관상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자식의 별들이 얼굴에 가득 찼군요. 이 어찌 음덕(陰德)을 쌓은 결과가 아니겠소?’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앙의 처와 첩들이 한두 해 사이에 아들을 다섯이나 낳았다.

관상은 단순히 손바닥을 째거나 얼굴을 고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잘 써서 음덕을 쌓아야 관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음덕(陰德)이란 남모르게 소문내지 않고 베푸는 덕행을 말한다. 소문을 내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은 자신의 명성이나 이익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덕행이라 말할 수 없다. 어떠한 면으로든 댓가를 바라는 것이므로 결국 거래에 불과하며, 덕이 쌓일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댓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좋은 일은 덕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덕이 쌓이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므로 관상과 운명도 바뀐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상(手相)보다 관상(觀相)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心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진정 예뻐지고자 한다면 덕행을 쌓고 마음공부를 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에 계셨을 때의 일이다. 큰 장사꾼 파리는 바다의 신에게서 향내가 나고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영락을 받아 프라세나짓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 기이한 영락을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줄 테니 잘 꾸미고 오라 분부했다. 육십 명의 여자들이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곱게 화장한 채로 왕 앞에 모였다. 그러나 말리왕후의 모습만 보이지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마침 그 날이 보름인지라, 불법에 따라 재(齋)를 지키느라 소복입고 화장을 하지 않았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왕은 세 번이나 되풀이해 말리 왕후를 불렀는데, 그녀는 소복을 한 채로 그 곳에 이르렀고, 그 모습은 마치 해나 달과 같아서 평상시보다 몇 배나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에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 향기로운 영락을 말리왕후에게 주고자 하였지만, 왕후는 이를 거절하고 부처님께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 영락을 바치니 게송으로써 답하셨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다발 만들어
머리를 장식하면 아름다운 것 같이
덕의 향기 많이 쌓은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더욱 예뻐지느니라.’

재계(齋戒)를 지키느라 소복차림에 쌩얼로 등장한 말리왕후의 모습이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아름다웠으며, 갖가지로 치장한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를 체험해본 사람은 안다. 단지 하룻밤만이라도 삼천 배 철야정진이나 참선 용맹정진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며, 이에 따라 표정도 밝아지고 피부도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피부미인은 우유목욕이나 머드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수행을 통해서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나 할까?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의 향기는 덕과 수행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다. 뼈와 살을 깎아내고 붙인다고 해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배어날 수는 없다. 성형미인은 당장 예뻐 보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멋과 맛, 그리고 향기는 없다. 이를 테면 조화(造花)와 같아서 언뜻 보기에 예쁘기는 한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지고, 다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헤어지기를 가볍게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모두가 일시적이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다분히 상대적이다.<금강경>에서는 말한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일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참다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보게 되리라.”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이른 바 겉모습으로 참다운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겉모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고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아서 잠시 있는 듯싶지만, 막상 움켜쥐고자 하면 사라져버린다. 찰나생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믿지 못할 일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젊음도 결국 늙음으로 돌아가고, 둘째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셋째 육친이 한데 모여 즐거워도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고, 넷째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결국은 흩어지느니라.”

얼짱도 좋다. 몸짱도 좋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쭈그러지게 마련이다. 설혹 보톡스 주사를 맞아 얼굴의 주름을 편다고 해도 역시 한 때일 뿐이다. 저승에 가서는 어디에다 보톡스 주사를 맞을 것인가?

우리 모두 마음의 보톡스를 맞자! 그래서 맘짱이 되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래 면목(面目)에는 한 치의 주름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



관상까지 고치는 ‘성형천국’
마음 잘 써서 음덕을 쌓아야
관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얼짱 · 몸짱 상대적인 것일뿐
진정한 아름다움의 향기는
덕과 수행에서 배어 나오는 것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현대불교신문이 계속 발간된다. 운영 주체인 한마음선원이 커다란 용단을 내었다. (주)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문사측의 자구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는 경영상의 비효율과 누적되는 부실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폐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2년간 ‘현대불교’가 포교와 불교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기에 이런 사태를 아쉬워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폐간 유보결정을 들으니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 ‘현대불교’가 원력과 그간 축적한 노하우로 더 좋은 신문으로 불교계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새 출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새 길을 모색하고 있고 한마음선원 역시 12년 전의 창간 정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마음’을 냈다. 그 결과로 회생하게 된 ‘현대불교’,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새로 탄생해야 한다. 이번 자구책에 합의한 용단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희생을 감내하고 다시 서게 된 오늘의 결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구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무엇보다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함은 물론,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을 결정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급여를 삭감하고 더욱 고군분투 하여 ‘좋은 신문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같은 큰 틀 속에서 새 활로를 모색하는데 합의한 이사회 측이나 명퇴자 그리고 남아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이들의 용단이 거룩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의 기회는 맞이하였으나, 마냥 즐거워만 할 처지도 아니다. 3자의 합의, 이 정신은 계속 빛을 내야 한다. 경영 정상화만이 해답이다.

‘현대불교’의 희망은 불교계 공동의 미래다

현대불교신문이 어떤 곳인가. 지난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12년간 불교 언론을 선도했던 신문이다. 불교계의 크고 작은 소식으로부터 교리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집 내용은 정말 법음의 요람이었다. ‘현대불교 한 부가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증표다. 가뜩이나 타종교에 비해 전파력이 약세에 몰려 있던 불교계의 처지에서 볼 때, 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매주 받아보는 여러 종류의 정기 간행물 가운데 현대불교신문을 가장 사랑한다.

이번 ‘현대불교’의 폐간 결정과 향후 운영상황을 통해 폐간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한 어려운 과정은 한 회사의 일로만 치부 될 성질이 아니다. 불교계의 언론 환경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는 좋은 거울이다. 불교계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은 포교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현실은 늘 척박하고 불안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전반적인 포교 원력이 재무장되어야 한다. 포교 원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가장 적절한 포교 수단인 언론에 대한 애정도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마음 선원의 언론 포교에 대한 원력은 남다르다. 지난 12년 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현대불교’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칭송할 일이다. 이제 그 원력이 ‘새로움’으로 중생계를 이끄는 빛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희망을 갖자. ‘현대불교’여, 영원 하라.

■ 윤범모(경원대 미술대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할인 봉사 기간이 2006년 말로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에 공급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연꽃속에 자리잡은 맑고 넉넉한 도량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1) 고성 연화산 옥천사


옥천사 백련암.


옥천사 방생량 표지석.


옥천사 대웅전 배수구 돌다리.


무당벌레.

경남 고성 땅은 옛날 소가야의 영토였다. 6세기 전반에 신라가 병합하긴 했으나, 서라벌에서는 먼 변방이었다. 따라서 의상대사가 이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곳에다 화엄십찰의 하나인 옥천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전하는 바에도, 원래 '비슬산'이었던 지명을 조선 인조 때 학명대사가 지금의 지명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웃한 지리산 쌍계사 진감국사비에도 "이웃 고을에 같은 이름인 옥천사가 있어서, 쌍계사 이름을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화산(蓮花山)은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의 하나이자, 경남의 도립공원이다. 연화산은 지리산 영신봉(1651m)에서 내려온 낙남정맥의 한 지봉에 속한다. 하동과 진주 사이로 내려온 낙남정맥은 연화산에서 다시 북동진하면서 대곡산(543)-여항산(744)-무학산(763)으로 이어진다.

옥천사 입구 집단시설지구 왼편 산기슭에 방생량(放生場) 표석이 서 있다.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4년, 인조 때 개각(改刻)해 세웠다고 하니 4백년에 가까운 유물이다. 토박이 문화유산해설사인 김영환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방생 수륙재(水陸齋)가 열렸다고 한다. 표석 주위에 소류지가 있어서 물고기를 방생하고, 산짐승들을 위해 먹을 것을 보시했다고 전한다. 말하자면, 자연보호 활동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표석 건너편에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있다. 지름이 30㎝ 안팎 되는 중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수십개나 된다. 앞뒷발이 분명해서 보행의 방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유적이 계곡에 자리하고 있어서 장마철이면 위로부터 돌과 토사가 내려와 족적의 마모를 재촉하고, 관광객들도 함부로 들어가 훼손을 앞당기고 있다. 안내판이라도 세워 자연사의 흔적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옥천사 반대편 연화산 자락의 계승사에도 얼마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이 남아있다.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큰 저수지 주변엔 굴피나무 군락이 있고, 저수지를 지나면 노송, 느티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등 늙은 활엽수들이 만들어내는 선경 같은 숲길로 접어든다. 말채나무, 산뽕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산뽕나무, 비목, 단풍나무, 두릅나무, 편백나무, 쪽동백, 나도밤나무, 생강나무 등등의 중간 크기 나무들도 층위 구조를 튼실히 하며 한데 어울려 있다. 일주문은 그 숲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일주문 오른쪽의 옥천은 서출동류하는 옥천사의 명당수이다. 갈수기인데도 물소리가 맑고 넉넉하다. 갈겨니와 버들치들이 물 위에 떨어진 단풍잎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옛날 옥천 곳곳에는 조선시대 불교피압의 역사와 관련된 물레방아가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길섶에 귀화식물인 미국미역취가 날보란 듯이 피어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미국 원산의 여러해살이 국화과 식물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에 분포한다.

천왕문을 지나 편백나무과 전나무가 줄지어 선 석축을 오르면 암수 은행나무 노거수가 자리한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오른쪽으로는 이 절에서 출가한 청담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자리하고 있다.

마당 가운데 서면 자방루(滋芳樓)가 마치 거대한 성채처럼 석축 위에 앉아 있다. 자방루는 3백년 된 건물로, 당시 승군의 회합 공간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자방루 앞에 서면 옥천사의 안대가 말잔등처럼 부드럽게 지나간다.

옥천사의 가람배치는 네모난 마당을 가운데 배치한 조선 중기의 중정(中庭) 구조에 충실하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심검당과 적묵당을 두고, 맞은 편에 자방루가 자리하고 있다. 전각 배치가 너무 조밀하여 좀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산을 다치지 않게 지형지세를 고려한 결과이다.

옥천사에는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에 습합된 고유의 민간신앙들을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신령각에는 산신을 모시고, 칠성각에는 칠성신을 모시고, 옥천각에는 용왕신을 모시고, 요사채 부엌에는 조왕대신 탱화가 걸려 있다.

옥천사의 제신들은 삼신일각(三神一閣)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독립된 전각을 지어서 따로 모시고 있다. 특히 산령각은 반평에도 못 미치는 0.46평으로, 우리나라 전각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선 채로 절을 한다. 그래도 1백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품고 있다.

어느 절이나 대웅전 뒷쪽은 대개 음습하고, 더러는 지하수까지 새어나오기도 한다. 그 수기(水氣)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목조인 전각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옥천사 대웅전 옆 배수구는 정성을 들인 만큼 아름답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작은 돌다리도 눈맛이 예사롭지 않다.

입구에 세워진 방생량 표석 4백년 전 자연보호 현장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 훼손 심각, 종단서 보존해야
작은 돌다리 형태로 만든 배수구 미·기능 모두 갖춰


옥천사 공룡발자국.

대웅전 공간 뒤에는 귀화식물인 털별꽃아재비가 희고 앙징맞은 꽃들을 안개처럼 피우고 있다. 고향이 아열대지역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날씨가 따뜻한 남부지에서 자란다. 키는 30㎝ 안팎이며, 가지와 잎에 털이 촘촘히 나 있다.

명부전 뒤로 가면 산이름과 절이름의 연기를 밝혀주는 옥천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용왕을 모신 용신신앙의 현장이다. 특히 고성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용신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다.

탐진당 처마 안에 말벌이 멋진 집을 지어 놓았다. 말벌은 건물이나 바위 아래에 항아리 모양의 집을 짓는데, 말벌류의 집 가운데는 가장 아름답다. 말벌의 집은 나무껍질에서 섬유질을 뜯어 침과 섞은 밀랍으로 짓는다. 말벌은 가을이면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 열어놓았던 문을 꼭꼭 틀어막는다.

산내암자인 청련암은 옥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다. 암을 이상세포라고 한다면, 나무들도 암을 앓는다. 개울 건너 청련암 갈림길에 늙은 개서어나무가 암을 앓고 있다.

청련암 뒤로 아담하니 대숲이 내려와 있다. 청련암은 차나무를 키워서 생율로 조경하였다. 해우소 가는 길에 때마침 차꽃이 피어 꼬마장수말벌 몇 마리가 이 꽃 저 꽃 찾아다니며 꿀을 빨고 있다. 채소밭 밭둑의 산국에도 몇 종류의 벌들이 앉아서 꿀을 빨고 있다.

청련암 경내에는 무당벌레들이 유난히 많다. 전각마다 시위를 하듯이 떼거리로 전각에 붙어있다. 종류만도 얼핏보아 5~6가지나 된다. 무당벌레들은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나무기둥의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겨울 한 철을 나기도 한다.

해우소 곁에 앙징맞은 돌확이 있다. 대나무 대롱을 타고 물이 끊임없이 내려와 돌확에 말갛게 고여 있다. 이 물은 해우소에 볼일 보고 나와 손을 씻으라는 물이다. 사중에서는 이름하여 '세진수(洗塵水)라고 부르고 있다.

백련암으로 가는 숲길은 단풍물이 한껏 번져서 눈맛도 좋거니와 휘어져 구비도는 맛이 예사롭지 않다. 생태적으로 보면 소나무와 활엽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젊은 날에는 서로 싸우다가 말라 죽기도 한다. 대개는 소나무가 밀리지만, 나이가 들면 나무들도 너그러워져서 싸우지 않는다. 백련암 가는 숲길은 노송과 활엽수와 왕대가 너그럽게 어울어진 평화의 숲이다. 산가막살나무, 개벚나무, 서어나무, 쪽동백, 합다리나무 등등도 큰 나무들 사이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늦가을 옥천사 골짜기에서 관찰된 조류는 거의가 텃새들이다.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턱멧새, 박새, 진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직박구리, 쇠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까마귀, 꿩 등이다. 조류의 다양성은 백련암 주변이 그 중 낫다. 새들도 안대를 찾기 때문이다.

백련암 뒤로도 연화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나 있다. 백련암에서 연화산 정상까지는 40분 거리, 거기에서 황새고개로 내려서 남산을 거쳐 청련암으로 내려오는 데 1시간 남짓 걸린다. 당항포 쪽빛 바다가 멀리 굽어보이고, 연봉 속에 묻힌 옥천사도 내려다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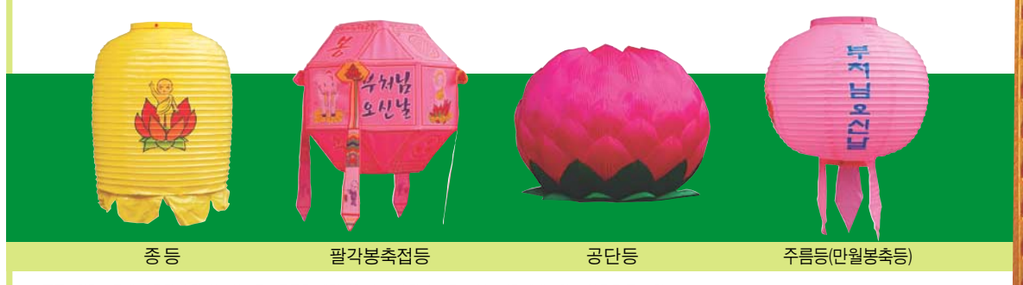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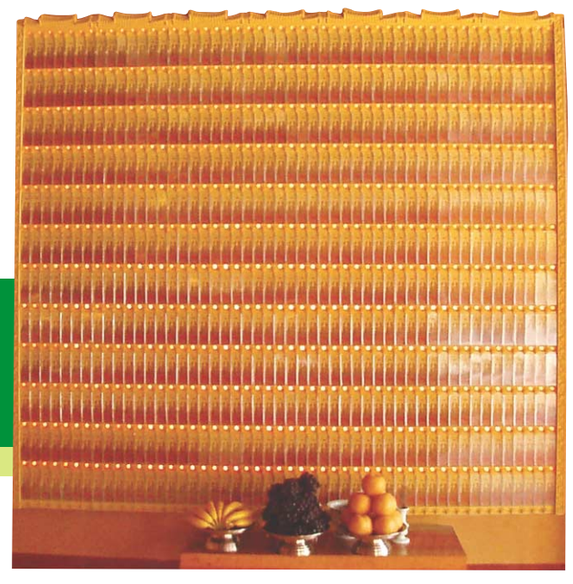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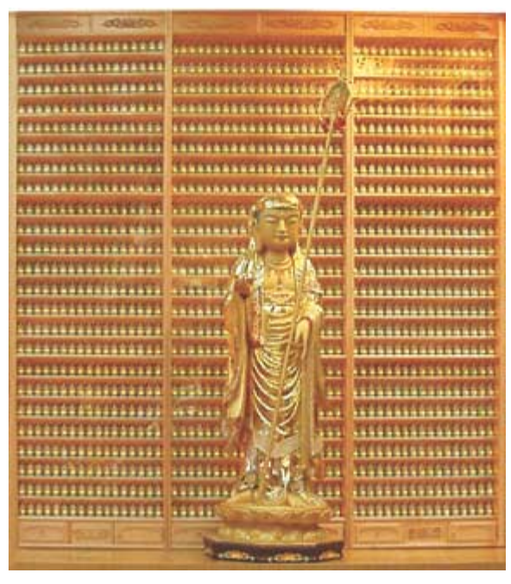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